

우리나라 勞動力 人口의 構成變化

宋 瑋 燮
(亞洲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目 次》

- I. 1990年 經濟活動 狀況分析 II. 1990年代 勞働政策의 方向

I. 1990년 경제활동상황분석

1. 성, 연령, 시군 및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상에 나타난 경제활동 상황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력 인구의 구성변화를 보기로 하자. 동 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중 우리나라 총인구 43,410,899명중 72.7%에 해당하는 31,575,873명이 15세 이상 인구이고, 15세 이상 인구의 49.9%인 15,750,691명이 유업자이며 그 나머지 50.1%인 15,825,182명이 무업자로 나타났다.¹⁾

유업자와 무업자의 구성을 연령별, 성별, 시·군별 및 지역별로 보면, 먼저 유업자의 구성중 15-24세까지의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로 나타났으며 65세이상의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은 2.9%에 그쳤다. 그 대신 25-64세까지의 비중이 나머지인 82.4%를 차지하여 아직도 연소 유업자와 고령 근로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 유업자중 가장 구성비가 높은 연령계층은 30-34로 16.4%를 나타냈다.

한편 무업자의 경우는 재학중의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5-19세의 경우 전체 무업자의 24.4%에 달하고 있고, 고령근로자의

1)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업자와 무업자의 개념은 경제활동인구 연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개념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경제활동인구 연보상에서는 현상태 접근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구센서스상의 경제활동 상황 분석을 위해서는 평상상태 접근방법을 근거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직접적 비교는 무리를 가져오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우 사회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65세 이상의 경우 전체 무업자의 10.8%에 달하는 인력이

직업이 없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표 1. 성, 연령, 시군 및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

특성	15세 이상 인구	유업자	무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유업자/15세이상인구) (%)
전 국	31,575,873(100.0)	15,750,691(100.0)	15,825,182(100.0)	49.9
15-19	4,412,310(14.0)	551,913(3.5)	3,860,397(24.4)	12.5
20-24	3,808,292(12.1)	1,765,225(11.2)	2,043,067(12.9)	46.4
25-29	4,300,239(13.6)	2,395,036(15.2)	1,905,203(12.0)	55.7
30-34	4,200,221(13.3)	2,579,236(16.4)	1,620,985(10.3)	61.4
35-39	3,195,975(10.1)	2,101,248(13.3)	1,094,727(6.9)	65.7
40-44	2,535,425(8.0)	1,720,307(10.9)	815,118(5.2)	67.9
45-49	2,174,059(6.9)	1,472,969(9.4)	701,090(4.4)	67.8
50-54	2,008,536(6.4)	1,300,731(8.2)	707,805(4.5)	64.8
55-59	1,622,138(5.1)	923,328(5.9)	698,810(4.4)	56.9
60-64	1,156,874(3.7)	495,690(3.1)	661,094(4.2)	42.9
65-69	900,170(2.8)	279,139(1.8)	621,031(3.9)	31.0
70이상	1,261,724(4.0)	165,869(1.1)	1,095,855(6.9)	13.1
남 자	15,314,886(48.5)	10,454,135(66.4)	4,860,751(30.7)	68.3
여 자	16,260,987(51.5)	5,296,556(33.6)	10,964,431(69.3)	32.6
시 부	23,355,505(74.0)	11,045,970(70.1)	12,309,535(77.8)	47.3
군 부	8,220,368(26.0)	4,704,721(29.9)	3,515,647(22.2)	57.3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6권, 경제활동

한편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유업자의(비율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가장 낮은 연령계층이 15-19세(12.5%), 70세이상(13.1%) 순이고 가장 높은 계층이 40-44세(67.9%), 45-49세(67.8%), 35-39세(65.7%), 50-54세(64.8%)의 순으로 되어 있다.

성별 경제활동상태별 인구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중 48.5%가 남자이고 그나머지인 51.5%가 여자인데, 유업자의 경우는 남성이 66.4%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인 33.6%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업자의 경우에는 유업자의 경우와는 반대로 30.7%가 남성이고 69.3%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세 이상 인구중 유업자의 비중(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남자가 68.3%인데 비하여 여성은 32.6%를 나타내고 있어 뿌리 깊은 고용 불평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시·군별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를 보면, 전체 15세이상 인구의 74.0%가 시부에 거주하는 반면 나머지 26%만이 군부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업자의 경우는 15세

이상인구의 구성에 비해서 농촌 근로여성의 존재를 반영하여 시부(70.1%)보다 군부의 비중이(29.9%)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 있다.

무업자의 경우는 오히려 시부(77.8%)의 비중이 군부(22.2%)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유업자와 무업자의 시·군별 분포

를 반영하여, 경제활동참가율도 시부(47.3%)보다 군부(57.3%)의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나 있는바 이는 특히 농촌 근로자가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 경우(남녀)가 다같이 농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표 1 참조).

표 2. 지역별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

지 역	15세 이상 인구	유업자	무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유업자/15세이상인구) (%)
전 국	31,575,873 (100.0)	15,750,691 (100.0)	15,825,182 (100.0)	49.9
서울특별시	7,836,389 (24.8)	3,689,810 (23.4)	4,146,579 (26.2)	47.1
부산직할시	2,770,310 (8.8)	1,336,718 (8.5)	1,433,592 (9.1)	48.3
대구직할시	1,627,709 (5.2)	751,498 (4.8)	876,211 (5.5)	46.2
인천직할시	1,297,003 (4.1)	646,474 (4.1)	650,529 (4.1)	49.8
광주직할시	809,772 (2.6)	338,505 (2.1)	471,267 (3.0)	41.8
대전직할시	755,199 (2.4)	326,615 (2.1)	428,584 (2.7)	43.2
경 기 도	4,432,967 (14.0)	2,296,200 (14.6)	2,136,767 (13.5)	51.8
강 원 도	1,147,333 (3.6)	549,100 (3.5)	598,233 (3.8)	47.9
충 청 북 도	1,008,795 (3.2)	520,759 (3.3)	488,268 (3.1)	51.6
충 청 남 도	1,479,915 (4.7)	772,647 (4.9)	707,268 (4.5)	52.2
전 라 북 도	1,490,199 (4.7)	747,166 (4.7)	743,033 (4.7)	50.1
전 라 남 도	1,802,718 (5.7)	1,017,780 (6.5)	784,938 (4.9)	56.5
경 상 북 도	2,115,225 (6.7)	1,172,205 (7.4)	943,030 (5.9)	55.4
경 상 남 도	2,628,075 (8.3)	1,384,606 (8.8)	1,243,469 (7.9)	52.7
계 주 도	374,254 (1.2)	200,608 (1.3)	173,646 (1.1)	53.6

주: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2. 지역별 경제활동상태별 인구

시·도 지역별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를 보면, 전국 15세 이상인구 31,575,873명중 24.8%인 7,836,389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1.2%인 374,254명만이 제주도에 살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보면 1위가 서울특별시(24.8%)이고 2위가 경기도(14.0%)이며 3위는 부산직할시(8.8%)가 차지하고 있다. 4 위로는 경상남도(8.3%)가 차지했는데 이처럼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많은 15세 이상 인구를 차지하게된 이유는 이들 두 지역 모두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라는 대도시를 근접하고 있어 인근의 중소 도시로 이주하여 생활의 근거를 잡고 고용기회를 찾고자 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이들 두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업자의 시·도 지역별 분포 상황을 보면 서울(24.4%), 경기도(14.6%), 경상남도(8.8%), 부산직할시(8.5%)의 순으로 많은 유업자를 가지고 있으며 무업자의 경우 그 구성비가 높은 순으로 보면 서울특별시(26.2%), 경기도(13.5%), 부산직할시(9.1%), 경상남도(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유업자가 많은 곳은 무업자도 많아서 대도시 또는 인구 집중 지역일 수록 실업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겠다.

시·도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전국이 49.9%인 것에 비하여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등이 전국의 값보다 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시현하고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 강원도 등이 전국치 49.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강원도를 제외한 전체의 직할시들이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를 앞서 언급한 대도시의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직도 농촌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 지역은 전라남도(56.5%)이고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곳은 대전직할시(43.2%)로 나타나 전자가 전형적인 농촌경제 중심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면 후자는 새로이 편입된 지역이 늘어나면서 아직 대도시 형태의 고용 창출에 적응하고 있지 못함을 여실이 나타낸 결과라고 보겠다(표 2 참조).

3. 유업상태, 연령 및 종사상의 지위별 유업자

이제 <표 3>을 이용하여 유업상태, 연령 및 종사상의 지위별 유업자에 대해서 보면, 전체 유업자(15,750,691명)의 59.8%인 9,410,572명이 임금, 봉급근로자인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24.2%, 무급가족 종사자가 10.6% 및 고용원을 둔 사업자가 5.4%로 각각 나타났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 유업자가 피고용자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40% 정도가 사업주 내지는 자영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계급별로 종사상의 지위별 유업자를 보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금·봉급 근로자가 각 연령 계급별로 유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비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고용원을 둔 사업주의 비중은 15-19세부터 점차 연령이 높아지면서 40-44세 까지는 늘어나다가 그이후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상식선에서 보는 현상이 통계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유업상태와 종사상의 지위별 유업자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유업자의 경우, 임금, 봉급 근로자가 64.8%,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24.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고용원을 둔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으며(5.9%) 그 나머지를 무급가족 종사자(4.7%)가 점유하고 있어서 전체 유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유업자와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집안일을 보면서 종사하는 유업자의 경우,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월등이 큰것

(61.0%)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는 유업자의 경우도 무급가족 종사자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자진격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각각 22.6%와 27.2%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히 임금·봉급 근로자로서의 자격으로 고용되는 유업자의 비중(48.4%)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유업상태, 연령 및 종사상의 지위별 유업자

특 성	계	고용원을 둔 사업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 봉급 근로자
전 국	15,750,691 (100.0)	847,365 (5.4)	3,815,584 (24.2)	1,677,170 (10.6)	9,410,572 (59.8)
15-19	551,913 (100.0)	726 (0.1)	6,429 (1.2)	42,918 (7.8)	501,840 (90.9)
20-24	1,765,225 (100.0)	10,138 (0.6)	64,303 (3.6)	131,080 (7.4)	1,559,704 (88.4)
25-29	2,395,036 (100.0)	66,852 (2.8)	255,903 (10.7)	190,338 (7.4)	1,881,943 (78.6)
30-34	2,579,236 (100.0)	156,634 (6.1)	476,151 (18.5)	213,923 (8.3)	1,732,528 (67.1)
35-39	2,101,248 (100.0)	173,505 (8.3)	512,479 (24.4)	194,457 (9.3)	1,220,807 (58.0)
40-44	1,720,307 (100.0)	150,070 (8.7)	497,690 (28.9)	174,116 (10.2)	898,431 (52.2)
45-49	1,472,969 (100.0)	120,847 (8.2)	481,133 (32.7)	185,495 (12.6)	685,494 (46.5)
50-54	1,300,731 (100.0)	84,046 (6.5)	501,408 (38.5)	201,497 (15.5)	513,780 (39.5)
55-59	923,328 (100.0)	47,604 (5.2)	425,732 (46.1)	166,621 (18.0)	283,371 (30.7)
60이상	940,698 (100.0)	36,943 (3.9)	594,356 (63.2)	176,725 (18.8)	132,674 (14.1)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	13,935,052 (100.0)	829,031 (5.9)	3,423,552 (24.6)	661,672 (4.7)	9,020,797 (64.8)
집안일을 보면서	1,622,579 (100.0)	12,731 (0.8)	365,793 (22.6)	990,803 (61.0)	253,252 (15.6)
학교에 다니면서	88,783 (100.0)	947 (1.1)	3,008 (3.4)	10,029 (11.3)	74,799 (84.2)
다른일을 하면서 틈 틈히 일울함	58,115 (100.0)	1,020 (1.8)	15,813 (27.2)	13,163 (22.6)	28,119 (48.4)
직장 또는 하고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 정에 의해 쉽	46,162 (100.0)	3,636 (7.9)	7,418 (16.1)	1,503 (3.3)	33,605 (72.7)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6권, 경제활동

표 4. 유업상태, 연령 및 직업별 유업자

특 성	계	고용원을 둔 사업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 봉급 근로자
전 국	15,750,691(100.0)	847,365(5.4)	3,815,584(24.2)	1,677,170(10.6)	9,410,572(59.8)
15-19	551,913(100.0)	726(0.1)	6,429 (1.2)	42,918 (7.8)	501,840(90.9)
20-24	1,765,225(100.0)	10,138(0.6)	64,303 (3.6)	131,080 (7.4)	1,559,704(88.4)
25-29	2,395,036(100.0)	66,852(2.8)	255,903(10.7)	190,338 (7.9)	1,881,943(78.6)
30-34	2,579,236(100.0)	156,634(6.1)	476,151(18.5)	213,923 (8.3)	1,732,528(67.1)
35-39	2,101,248(100.0)	173,505(8.3)	512,479(24.4)	194,457 (9.3)	1,220,807(58.0)
40-44	1,720,307(100.0)	150,070(8.7)	497,690(28.9)	174,116(10.2)	898,431(52.2)
45-49	1,472,969(100.0)	120,847(8.2)	481,133(32.7)	185,495(12.6)	685,494(46.5)
50-54	1,300,731(100.0)	84,046(6.5)	501,408(38.5)	201,497(15.5)	513,780(39.5)
55-59	923,328(100.0)	47,604(5.2)	425,732(46.1)	166,621(18.0)	283,371(30.7)
60이상	940,698(100.0)	36,943(3.9)	594,356(63.2)	176,725(18.8)	132,674(14.1)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	13,935,052(100.0)	829,031(5.9)	3,423,552(24.6)	661,672(4.7)	9,020,797(64.8)
집안일을보면서	1,622,579(100.0)	12,731(0.8)	365,793(22.6)	990,803(61.0)	253,252(15.6)
학교에다니면서	88,783(100.0)	947(1.1)	3,008(3.4)	10,029(11.3)	74,799(84.2)
다른일을 하면서 틈틈 히 일을 함	58,115(100.0)	1,020(1.8)	15,813(27.2)	13,163(22.6)	28,110(48.4)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 에 의해 쉽	46,162(100.0)	3,636(7.9)	7,418(16.1)	1,503(3.3)	33,605(72.7)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유업상태 연령 및 종사상의 지위별 유업자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표 4>를 보기로 하자. 고용원을 둔 사업자의 경우는 35~39세(20.5%), 30-34세(18.5%), 40-44세(17.7%)를 각각 나타내고 있고 45-49세(14.3%)가 4위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 발전의 진전과 함께 상대적으로 젊은층인 30-39세의 경영자로서의 사회진출이 40-49세보다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경우는 30세이상의 각 연령 계급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

고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에도 노련미를 가지고 위험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자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각 연령계급별로 고르게 분포를 보이고 있어 두드러진 특징을 볼수 없으나 임금·봉급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20-39세까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이후는 점차 줄어들어 종사상의 지위가 변모하여 가는 사회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유업상태별로 유업자를 분류해 보면 전체 유업자의 88.5%인 13,935,052명이 전적으로 돈

별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른바 시간제 노동에 가까운 상태로 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도 11.3%나 되어 우리나라도 집안일을 보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또는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결코 소홀히 다룰 일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4. 성별, 시·군별, 지역별 종사상의 지위별 유업자

이제 성별, 시·군별, 지역별 종사상의 지위별 유업자에 대해서 (표 5)를 이용해서 보기로 하

자. 먼저 고용원을 둔 사업주에 대해서 보면 남자가 86.1%, 여자가 13.9%를 차지하고 있어서 남자가 단연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는 쉽사리 예상했던 대로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시부에 거주하는 사업주가 88.6%, 군부에 거주하는 사업주가 11.4%를 차지하여 납득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역시 서울특별시(37.1%), 경기도(13.6%), 부산직할시(9.9%)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71.4%, 여성이 28.6%를 차지하여 고용원을

표 5. 성별, 시·군별, 지역별 종사자의 지위별 유업자

계		고용원을 둔 사업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봉급 근로자		
전	국	15,750,691(100.0)	847,365(100.0)	3,815,584(100.0)	1,677,170(100.0)	9,410,572(100.0)
남	자	10,454,135(66.4)	729,349(86.1)	2,916,699(71.4)	264,080(15.8)	6,544,007(69.5)
여	자	5,296,556(33.6)	118,016(13.9)	898,885(28.6)	1,413,090(84.2)	2,866,565(30.5)
시	부	11,045,970(70.1)	750,805(88.6)	1,835,681(48.1)	434,985(25.9)	8,024,499(85.3)
군	부	4,704,721(29.9)	96,560(11.4)	1,979,903(51.9)	1,242,185(74.1)	1,386,073(14.7)
서울	특별시	3,689,810(23.4)	314,653(37.1)	576,275(15.1)	120,875(7.2)	2,678,007(28.5)
부산	직할시	1,336,718(8.5)	83,810(9.9)	203,431(5.3)	47,332(2.8)	1,002,145(10.7)
대구	직할시	751,498(4.8)	53,781(6.4)	135,108(3.5)	32,861(2.0)	529,748(5.6)
인천	직할시	646,474(4.1)	35,874(4.2)	89,504(2.4)	18,179(1.1)	502,917(5.3)
광주	직할시	338,505(2.2)	19,965(2.4)	73,754(1.9)	21,497(1.3)	223,289(2.4)
대전	직할시	326,615(2.1)	20,145(2.4)	59,553(1.6)	15,152(0.9)	231,765(2.5)
경	기	2,296,200(14.6)	114,842(13.6)	468,063(12.3)	143,951(8.6)	1,569,344(16.7)
강	원	549,100(3.5)	22,134(2.6)	163,237(4.3)	79,671(4.8)	284,058(3.0)
충	청	520,759(3.3)	17,992(2.1)	174,880(4.6)	99,837(6.0)	228,050(2.4)
충	청	772,647(4.9)	20,596(2.4)	321,506(8.4)	177,491(10.6)	253,054(2.7)
전	라	747,166(4.7)	24,092(2.8)	274,511(7.2)	172,567(10.3)	275,996(2.9)
전	라	1,017,780(6.5)	24,331(2.9)	413,911(10.9)	285,460(17.0)	294,078(3.1)
경	상	1,172,205(7.4)	34,419(4.1)	415,385(10.9)	248,355(14.8)	474,046(5.0)
경	상	1,384,606(8.8)	50,684(6.0)	382,565(10.0)	177,888(10.6)	773,469(8.2)
계	주	200,608(1.3)	10,047(1.2)	63,901(1.7)	36,054(2.2)	90,606(1.0)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권 경제활동.

둔 사업주 보다 여성의 진출이 다소 늘어난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시·군별로는 시부에 48.1%, 군부에 51.9%를 나타내고 있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예상되는 대로 남성이 15.8%에 불과한 반면 여성이 84.2%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이 가족구성원중에서 무급으로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군별 분포를 보면 시부에 25.9%, 군부에 74.1%를 나타내고 있어 전국적으로 특히 농촌에 골고루 분포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여성근로자가 농촌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유업자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 및 봉급근로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69.5%, 여자가 30.5%를 차지하여 대체로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의 여성근로자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군별로는 예상대로 시부에 85.3%, 군부에 14.7%가 분포하고 있어 대도시에 임금·봉급근로자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28.5%), 경기도(16.7%), 부산직할시(10.7%), 경상남도(8.2%)의 순으로 높은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 44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집중, 집적이 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겠다.

성별, 시군별, 지역별 종사상의 지위별 유업자를 <표 6>을 이용하여 좀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유업자의 59.8%를 임금 봉

표 6. 성별, 시·군별, 지역별 종사자의 지위별 유업자

특 성	계	고용원을 둔 사업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봉급 근로자
전 국	15,750,691(100.0)	847,365(5.4)	3,815,584(24.2)	1,677,170(10.6)	9,410,572(59.8)
남 자	10,454,135(100.0)	729,349(7.0)	2,916,699(27.9)	264,080(2.5)	6,544,007(62.6)
여 자	5,296,556(100.0)	118,016(2.2)	898,885(17.0)	1,413,090(26.7)	2,866,565(54.1)
시 부	11,045,970(100.0)	750,805(6.8)	1,835,681(16.6)	434,985(3.9)	8,024,499 (72.7)
군 부	4,704,721(100.0)	96,560(2.1)	1,979,903(42.1)	1,242,185(26.4)	1,386,073(29.4)
서울특별시	3,689,810(100.0)	314,653(8.5)	576,275 (15.6)	120,875 (3.3)	2,678,007(72.6)
부산직할시	1,336,718(100.0)	83,810(6.3)	203,431(15.2)	47,332(3.5)	1,002,145(75.0)
대구직할시	751,498(100.0)	53,781(7.1)	135,108(18.0)	32,861 (4.4)	529,748(70.5)
인천직할시	646,474(100.0)	35,874(5.6)	89,504(13.8)	18,179(2.8)	502,917(77.8)
광주직할시	338,505(100.0)	19,965(5.9)	73,754(21.8)	21,497(6.3)	223,289(66.0)
대전직할시	326,615(100.0)	20,145(6.2)	59,553(18.2)	15,152(4.6)	231,765(71.0)
경 기 도	2,296,200(100.0)	114,842(5.0)	468,063(20.4)	143,951(6.3)	1,569,344(68.3)
강 원 도	549,100(100.0)	22,134(4.1)	163,237(29.7)	79,671(14.5)	284,058(51.7)
충 청 북 도	520,759(100.0)	17,992(3.4)	174,880(33.6)	99,837(19.2)	228,050(43.8)
충 청 남 도	772,647(100.0)	20,596(2.7)	321,506(41.6)	177,491(23.0)	253,054(32.7)
전 라 북 도	747,166(100.0)	24,092(3.2)	274,511(36.8)	172,567(23.1)	275,996(36.9)
전 라 남 도	1,017,780(100.0)	24,331(2.4)	413,911(40.7)	285,460(28.0)	294,078(28.9)
경 상 북 도	1,172,205(100.0)	34,419(2.9)	415,385(35.4)	248,355(21.2)	474,046(40.5)
경 상 남 도	1,384,606(100.0)	50,684(3.7)	382,565(27.6)	177,888(12.8)	773,469(55.9)
계 주 도	200,608(100.0)	10,047(5.0)	63,901(31.8)	36,054(18.0)	90,606(45.2)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급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24.2%), 무급가족 종사자(10.6%), 고용원을 둔 사업주(5.4%)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임금·봉급근로자(62.6%),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27.9%), 고용원을 둔 사업주(7.0%), 무급가족 종사자(2.5%)의 순으로 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임금·봉급근로자(54.1%), 무급가족종사자(26.7%),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17.0%), 고용원을 둔 사업주(2.2%)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 종사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상황을 보면, 먼저 시부의 경우에는 전국치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군부의 경우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42.1%), 임금·봉급근로자(29.4%), 무급가족종사자(26.4%), 고용원을 둔 사업주(2.1%)의 순으로 나타나 종사상의 지위별 유업자가 거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군부의 상황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보겠다. 시·도별로 종사상의 지위별 유업자를 분석해 보면, 고용원을 둔 사업주가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8.5%), 대구직할시(7.1%), 부산직할시(6.3%), 대전직할시(6.2%), 광주직할시(5.9%), 인천직할시(5.6%)의 순으로 되어 있어 상식선으로 받아들여지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고용원을 둔 사업주는 경영인으로서 주로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경우는 영세 중소기업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용원을 둔 사업주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위 1위에 서부터 보면 충청남도(41.6%), 전라남도(40.7%), 전라북도(36.8%), 경상북도(35.4%), 충청북도(33.6%)의 순으로 되어 있어 직할시, 특별시 등이 아닌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골고루 분

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에는 예상했던 대로 전라남도(28.0%), 전라북도(23.1%), 충청남도(23.0%), 경상북도(21.2%), 충청북도(19.2%)의 순으로 되어 있어 농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가족종사원의 자격으로 무급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를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대로 인천직할시(77.8%), 부산직할시(75.0%), 서울특별시(72.6%), 대전직할시(71.0%), 대구직할시(70.5%)의 순으로 되어 있어 고용원을 둔 사업주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산업별, 유업상태별 유업자

〈표 7〉을 이용하여 산업별, 유업상태별 유업자의 상황을 분석해 보자. 1990년의 경우 총유업자 15,750,691명의 27.3%인 4,320,605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0.8%인 3,280,453명이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19.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13.7%), 건설업(7.1%)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유업자의 경우를 보면, 전체의 29.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다음이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에 19.6%,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에 16.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14.4%가 종사하고 있다. 틈틈이 일을 하는 유업자의 경우에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에 59.3%,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에 17.3%, 제조업에 11.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7.5%가 종사하고 있어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와는 판이하게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공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던가 농촌에서 가정 주부로서 또는 도시에서 가게일이라든가 도·소매업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형태로 틈틈이 일을 하는 유업자의 중요성이

역실히 나타나고 있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일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는 유업자의 경우 제조업(27.6%),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20.1%), 건설업(17.1%),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13.5%)에 분포되어 있어, 특이한 것이

건설업 부문에 종사하는 유업자의 경우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또는 경기 상황에 의해서든 잠시 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표 7. 산업별, 유업상태별 유업자

산 업	계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	틈틈이 일을 함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일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
전 국	15,750,691 (100.0)	13,935,052 (100.0)	1,769,477 (100.0)	46,612 (100.0)
산 업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3,280,453 (20.8)	2,228,023 (16.0)	1,050,009 (59.3)	2,421 (5.3)
2. 광 업	62,342 (0.4)	60,988 (0.4)	562 (0.0)	792 (1.7)
3. 제 조 업	4,320,605 (27.3)	4,111,773 (29.5)	196,102 (11.1)	12,730 (27.6)
4. 전기, 가스 및 수도업	59,992 (0.4)	59,514 (0.4)	385 (0.0)	93 (0.2)
5. 건 설 업	1,119,049 (7.1)	1,066,784 (7.7)	44,391 (2.5)	7,874 (17.1)
6.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3,036,552 (19.3)	2,721,429 (19.6)	305,797 (17.3)	9,326 (20.1)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816,850 (5.2)	806,833 (5.7)	6,413 (0.4)	3,604 (7.8)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829,299 (5.3)	793,116 (5.7)	33,244 (1.9)	2,939 (6.4)
9.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148,202 (13.7)	2,009,463 (14.4)	132,490 (7.5)	6,249 (13.5)
10. 분류불능 산업	77,347 (0.5)	77,129 (0.6)	84 (0.0)	134 (0.3)

주 :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이제 <표 8>을 이용하여 산업별, 유업상태별 유업자의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총 유업자 15,750,691명의 88.5%가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11.2%가 틈틈이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0.3%가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일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농업, 수

렵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에는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유업자가 67.9%, 일을 틈틈이 하고 있는 유업자가 32.0%를 점유하고 있어 다른 산업과는 특이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유업자가 90% 이상을 훨씬 넘는 경

우가 많으나,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건설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 틈틈이 일을 하는 유업자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8. 산업별, 유업상태별 유업자

산 업	계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	틈틈이 일을 함	직장 또는 하고있는 일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쉼
전 국	15,750,691 (100.0)	13,935,052 (88.5)	1,769,477 (11.2)	46,612 (0.3)
산 업				
1. 농업 수렵업 임업및 어업	3,280,453 (100.0)	2,228,023 (67.9)	1,050,009 (32.0)	2,421 (0.1)
2. 광 업	62,342 (100.0)	60,988 (97.8)	562 (0.9)	792 (1.3)
3. 제 조 업	4,320,605 (100.0)	4,111,773 (95.2)	196,102 (4.5)	12,730 (0.3)
4. 전기, 가스 및 수도업	59,992 (100.0)	59,514 (99.2)	385 (0.6)	93 (0.2)
5. 건 설 업	1,119,049 (100.0)	1,066,784 (95.3)	44,391 (4.0)	7,874 (0.7)
6.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3,036,552 (100.0)	2,721,429 (89.6)	305,797 (10.1)	9,326 (0.3)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816,850 (100.0)	806,833 (98.8)	6,413 (0.8)	3,604 (0.4)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829,299 (100.0)	793,116 (95.6)	33,244 (4.0)	2,939 (0.4)
9.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148,202 (100.0)	2,009,463 (93.5)	132,490 (6.2)	6,249 (0.3)
10. 분류불능 산업	77,347 (100.0)	77,129 (99.7)	84 (0.1)	134 (0.2)

주 :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6. 직업별, 유업상태별 유업자

이제 <표 9, 10>을 이용하여 직업별, 유업상태별 유업자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직업별 유업자를 보면 전체 유업자 15,750,691명중 31.5%가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26.6%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이다.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가 15.3%이고 4위, 5위를 각각 판매종사자와 서비스직 종사자가 점하고 있으며 6위를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가 맡아보고 있다. 행정 및 관련직 종사자는 7위에 머물러 2.1%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직업별, 유업상태별 유업자

산 업	계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	틈틈이 일을 함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일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쉽
전 국	15,750,691 (100.0)	13,935,052 (100.0)	1,769,477 (100.0)	46,612 (100.0)
직 업				
1. 전문기술직 및 관련직종사자	1,171,541 (7.4)	1,109,196 (8.0)	58,733 (3.3)	3,162 (7.8)
2.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	327,787 (2.1)	325,796 (2.2)	313 (0.12)	1,678 (3.6)
3. 사무 및 관련직종사자	2,411,947 (15.3)	2,359,534 (17.0)	44,176 (2.5)	8,237 (17.8)
4. 판매종사자	2,186,799 (13.9)	1,949,111 (14.0)	231,288 (13.1)	6,400 (13.9)
5. 서비스 종사자	1,373,189 (8.7)	1,216,262 (8.7)	152,586 (8.6)	4,341 (9.4)
6. 농림어업직	3,247,573 (20.6)	2,196,481 (15.8)	1,049,002 (59.3)	2,090 (4.5)
7.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동자	4,954,618 (31.5)	4,701,653 (33.7)	233,295 (13.2)	19,670 (42.7)
8. 분류불능자	77,237 (0.5)	77,019 (0.9)	84 (0.0)	134 (0.3)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유업자의 분포는 전체 유업자의 분포상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틈틈이 일을 하는 유업자는 특이하게도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종사자가 무려 59.3%를 차지하여 단연 1위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동자(13.2%) 및 판매종사자(13.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일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는 유업자의 42.7%가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종사자 및 단순 노동자임은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상황이다.

이제 <표10>을 이용하여 유업상태별 유업자를 보면,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의 경우는 돈

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유업자가 99.4%를 보여 틈틈이 일을 하는 경우는 갖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회박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도 돈벌이 및 생업에 종사하는 유업자의 구성비가 94.7%에 달하고 있으나 틈틈이 일을 하는 유업자도 5%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보다는 다소 직업의 유동성을 보이고 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일을 계속하는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유업자의 구성비가 다른 직업 보다도 가장 낮은 구성비인 67.6%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틈틈이 일을 하

고 있는 유업자가 32.3%를 차지하고 있어 농림·어업 및 축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계절적으로, 간헐적으로 근로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틈틈이 일을 하는 유업자의 구성비가 상대적

으로 다소 높은 경우느 서비스직 종사자(11.1%, 판매종사자(10.6%)등으로 나타나 이들 직종들의 직종안정도가 상당히 다른 직종에 비해 낮고 유동적임을 파악할수 있겠다.

표 10. 직업별, 유업상태별 유업자

산 업	1계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	틈틈이 일을 함	직장또는하고있는 일이있으나 사정에의해 쉽
전 국	15,750,691 (100.0)	13,935,052 (88.5)	1,769,477 (11.2)	46,612 (0.3)
직 업				
1. 전문기술직 및 관련직종사자	1,171,541 (100.0)	1,109,196 (94.7)	58,733 (5.0)	3,162 (0.3)
2.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	327,787 (100.0)	325,796 (99.4)	313 (0.1)	1,678 (0.5)
3. 사무 및 관련직종사자	2,411,947 (100.0)	2,359,534 (97.8)	44,176 (1.8)	8,237 (0.4)
4. 판매종사자	2,186,799 (100.0)	1,949,111 (89.1)	231,288 (10.6)	6,400 (0.3)
5. 서비스 종사자	1,373,189 (100.0)	1,216,262 (88.6)	152,586 (11.1)	4,341 (0.3)
6. 농림어업직	3,247,573 (100.0)	2,196,481 (67.6)	1,049,002 (32.3)	2,090 (0.1)
7.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동자	4,954,618 (100.0)	4,701,653 (94.9)	233,295 (4.7)	19,670 (0.4)
8. 분류불능자	77,237 (100.0)	77,019 (99.7)	84 (0.1)	134 (0.2)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7. 직업 및 산업별 종사자

<표 11, 12>를 이용하여 직업 및 산업별 유업자에 대해 보기로 하자. 먼저 농림, 수렵업, 임업 및 어업 유업자의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직이 98.9%를 차지하여 농림, 수렵업, 임업 및 어업의 성격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광업의 경우에도 생산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84.4%를 차지하여 생산현장의 근로자가 다수

를 점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광업의 경우는 농림, 수렵업, 임업 및 어업과는 달리 사무 및 관리직 종사자,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도 상당수 고용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유업자의 70.3%가 생산 및 관련종사자이고 그 다음이 17.8%에 해당하는 사무 및 관리직 종사자가 차지하고 있고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판매종사자, 전문기술 및

표 11. 직업 및 산업별 취업자

직업	계	1. 농림수업업임업및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 및 수도업	5. 건설업	6. 도소매업 숙박업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8. 금융보험 부동산및 사업서비스업	9. 사회 및 개인사업 서비스업	10. 기타분류	
전국	15,750,691 (100.0)	3,280,453 (100.0)	4,320,605 (100.0)	59,992 (100.0)	1,179,049 (100.0)	3,036,552 (100.0)	816,850 (100.0)	829,299 (100.0)	2,148,202 (100.0)	77,347 (100.0)	
직업											
1.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1,171,541 (7.4)	2,526 (0.1)	127,398 (3.0)	6,755 (11.3)	38,519 (3.5)	40,929 (1.4)	13,813 (1.7)	82,260 (10.0)	858,505 (40.0)	(-)	
2.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	327,787 (2.1)	2,282 (0.1)	170,510 (3.9)	670 (1.1)	50,991 (4.6)	22,226 (0.7)	17,886 (2.2)	34,351 (4.1)	26,724 (1.2)	(-)	
3. 사무 및 관련직종사자	2,411,947 (15.3)	6,398 (0.2)	769,147 (17.8)	28,741 (47.9)	144,826 (12.9)	278,467 (9.2)	210,328 (25.7)	432,735 (52.2)	538,859 (24.9)	61 (0.1)	
4. 판매직종사자	2,186,799 (13.9)	610 (0.0)	147,005 (3.4)	352 (0.6)	1,281 (0.1)	1,856,527 (61.1)	2,007 (0.3)	174,641 (21.1)	4,007 (0.2)	9 (0.0)	
5. 서비스종사자	1,373,189 (8.7)	1,603 (0.0)	69,389 (1.6)	2,886 (4.8)	10,390 (0.9)	728,155 (24.0)	22,834 (2.8)	64,039 (7.7)	472,566 (22.0)	10 (0.0)	
6. 농림어업직	3,247,573 (20.6)	3,244,019 (98.9)	930 (0.0)	-	21 (0.0)	138 (0.0)	32 (0.0)	85 (0.0)	2,348 (0.1)	30 (0.0)	
7. 생산 및 관련종사자	4,954,618 (31.5)	23,015 (0.7)	3,036,226 (70.3)	20,588 (34.3)	873,021 (87.0)	110,110 (3.6)	549,900 (67.3)	40,988 (4.9)	248,123 (11.6)	77,237 (99.9)	
8. 분류 불가능자	77,237 (0.5)	-	-	-	-	-	-	-	-	-	

주: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표 12. 직업 및 산업별 유업자

직업	계	1. 농림수렵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 및 수도업		5. 건설업		6. 도소매업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8. 금융보험업		9. 사회 및 개인사업		10. 기타분류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1. 전문직종사자	1,171,541	3,280,453	62,342	4,320,605	59,992	1,179,049	3,036,552	816,850	829,299	2,148,202	77,347																		
2.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	327,787	2,282	2,167	170,510	670	50,991	22,226	17,886	34,351	26,724																			
3. 사무 및 관리직종사자	2,411,947	6,398	5,385	769,147	28,741	144,826	278,467	210,328	432,735	538,859	61																		
4. 판매직종사자	2,186,799	610	220	147,005	352	1,281	1,856,527	2,007	174,641	4,007	9																		
5. 서비스종사자	1,373,189	1,603	1,317	69,389	2,886	10,390	728,155	22,834	64,039	472,566	10																		
6. 농림어업직	3,247,573	3,244,019	-	930	-	21	138	32	85	2,348	30																		
7. 생산 및 관리종사자	4,954,618	23,015	52,617	3,036,226	20,588	873,021	110,110	549,900	40,988	248,123	77,237																		
8. 분류 불응자	77,237	-	-	-	-	-	-	-	-	-	-																		
	(100.0)	(20.8)	(0.4)	(27.4)	(0.4)	(7.1)	(19.3)	(5.2)	(5.3)	(13.6)	(0.5)																		

주: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제6권 경제활동

관련직 종사자등도 상당수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장 다양한 직업의 유업자를 포용하여 운용되고 있는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가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고, 그 다음이 생산 및 관련 종사자 (34.3%),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11.3%)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고급기술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는 산업으로 볼 수 있겠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유사하게 생산 및 관련종사자가 가장 높은 78.0%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가 12.9%,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4.6%,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가 3.5%를 점유하고 있어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외에도 다른 직종의 구성비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판매종사자의 비중이 61.1%를 차지하여 단연 큰 비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직 종사자가 24.0%,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가 9.2%를 나타내고 있어 3차 산업의 특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겠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에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가 67.3%,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가 25.7%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의 비중이 52.2%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종사자 또한 21.1%의 상당히 높은 구성비를 보여 3차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뚜렷이 알 수 있겠다.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가 40.0%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가 24.9%나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서비스직 종사자로 22.0% 차지하고 있어 이 부

문 또한 전형적인 3차 산업의 직업별 구성비를 시현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제 <표 12>를 중심으로 직업별, 산업별 유업자의 분포 상황을 좀더 상세히 보기로 하자. 먼저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의 73.3%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이 제조업에 10.9% 분포되어 있어 이들 두 산업이 거의 84% 이상의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52.0%가 종사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건설업(15.5%),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 10.5%가 종사하고 있다.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의 경우를 보면, 이 직종은 여러 산업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1위가 제조업(31.9%),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22.2%),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7.9%)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매종사자의 경우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단연 큰 비중이 주어져 있어 무려 84.9%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3.0%)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에는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34.4%)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 어업직은 문자 그대로 농림, 수렵업, 임업 및 어업이 99.9%를 점유하고 있고, 생산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1위를 당연히 제조업(61.3%), 2위를 건설업(17.6%), 3위를 운수·창고 및 통신업(11.1%)등이 차지하고 있다.

8. 혼인 상태, 연령 및 직업별 유업자

이제 <표 13, 14>를 이용하여 혼인 상태, 연령 및 직업별 유업자의 상황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표 13>에 의하면 전체 유업자의 23.7%인

표 13. 혼인상태, 연령 및 직업별 유업자

혼인상태 및 연령	계	1.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2. 행정 및 관리자	3.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4. 판 매 종사자	5. 서비스 종사자	6. 농 림 어업직	7. 생산 및 관련종사자	8. 분 류 불능자
전 국	15,750,691 (100.0)	1,171,541 (100.0)	327,787 (100.0)	2,411,947 (100.0)	2,186,799 (100.0)	1,373,189 (100.0)	3,247,573 (100.0)	4,954,618 (100.0)	77,237 (100.0)
미 혼	3,737,529 (23.7)	380,988 (32.5)	9,158 (2.8)	972,731 (40.3)	411,628 (18.8)	239,956 (17.5)	271,646 (8.4)	1,446,641 (29.2)	4,781 (6.2)
15-19	547,357 (3.5)	11,249 (1.0)	1 (0.0)	136,575 (5.7)	44,825 (2.0)	24,489 (1.8)	40,062 (1.3)	290,146 (5.9)	10 (0.0)
20-24	1,612,262 (10.2)	164,473 (14.0)	1,025 (0.3)	492,557 (20.4)	170,237 (7.8)	95,336 (7.0)	104,356 (3.2)	581,970 (11.7)	2,308 (3.0)
25-29	1,177,637 (7.5)	159,543 (13.6)	4,540 (1.4)	282,241 (11.7)	144,483 (6.6)	75,852 (5.5)	83,337 (2.6)	425,435 (8.6)	2,206 (2.8)
30-34	297,589 (1.9)	30,741 (2.6)	2,450 (0.7)	50,797 (2.1)	38,798 (1.8)	29,385 (2.1)	30,084 (0.9)	115,119 (2.3)	215 (0.3)
35이상	102,684 (0.6)	14,982 (1.3)	1,142 (0.4)	10,561 (0.4)	13,285 (0.6)	14,894 (1.1)	13,807 (0.4)	33,971 (0.7)	42 (0.1)
유배우	11,188,978 (71.0)	771,746 (65.9)	312,956 (95.5)	1,418,543 (58.8)	1,659,917 (75.9)	962,223 (70.0)	2,661,332 (81.9)	3,330,032 (67.2)	72,229 (93.5)
15-19	4,512 (0.1)	52 (0.0)	- (-)	382 (0.0)	273 (0.0)	431 (0.0)	633 (0.0)	2,741] (0.1)	- (2.3)
20-24	152,078 (1.0)	9,122 (0.8)	311 (0.1)	20,802 (0.9)	18,803 (0.8)	13,225 (1.0)	19,360 (0.6)	68,701 (1.4)	1,754 (22.5)
25-29	1,204,960 (7.6)	137,680 (11.7)	11,719 (3.6)	214,849 (8.9)	182,582 (8.3)	83,684 (6.0)	110,950 (3.4)	446,092 (9.0)	17,404 (23.5)
30-34	2,233,361 (14.2)	199,270 (17.0)	46,803 (14.3)	400,862 (16.6)	360,889 (16.5)	170,658 (12.4)	229,648 (7.1)	805,507 (16.2)	19,724 (21.1)
35-39	1,951,493 (12.4)	136,818 (11.7)	61,385 (18.7)	279,394 (11.6)	328,232 (15.0)	183,023 (13.3)	262,138 (8.1)	684,204 (13.8)	16,299 (12.4)
40-44	1,597,171 (10.1)	91,364 (7.8)	61,575 (18.8)	196,551 (8.1)	267,350 (12.2)	166,987 (12.2)	291,815 (9.0)	511,995 (10.3)	9,534 (7.3)
45-49	1,343,216 (8.5)	69,877 (6.0)	52,884 (16.1)	134,756 (5.6)	207,020 (9.5)	143,394 (10.5)	350,790 (10.8)	378,885 (7.7)	5,610 (1.9)
50-54	1,166,862 (7.4)	58,327 (5.0)	39,008 (11.9)	102,635 (4.2)	149,098 (6.9)	108,185 (7.9)	449,373 (13.8)	258,760 (5.2)	1,476 (0.5)
55-59	795,099 (5.0)	40,521 (3.5)	23,088 (7.0)	52,701 (2.2)	85,464 (4.0)	61,047 (4.5)	408,249 (12.6)	123,611 (2.5)	418 (0.0)
60-64	400,047 (2.5)	20,208 (1.7)	10,048 (3.1)	11,667 (0.5)	36,953 (1.7)	21,322 (1.5)	264,760 (8.1)	35,079 (0.7)	10 (0.1)
65이상	340,179 (2.2)	8,507 (0.7)	6,135 (1.9)	3,944 (0.2)	23,253 (1.0)	10,267 (0.7)	273,616 (8.4)	14,457 (0.3)	-
사 별	656,675 (4.2)	11,634 (1.0)	3,603 (1.1)	10,812 (0.5)	89,186 (4.1)	124,428 (9.1)	296,040 (9.1)	120,878 (2.4)	93 (0.1)
이 혼	167,509 (1.1)	7,173 (0.6)	2,070 (0.6)	9,860 (0.4)	26,068 (1.2)	46,582 (3.4)	18,555 (0.6)	57,067 (1.2)	134 (0.2)
미 상	-	-	-	-	-	-	-	-	-

주: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표 14. 혼인상태, 연령 및 직업별 유업자

혼인상태 및 연령	계	1.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2. 행정 및 관리자	3.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4. 판 매 종사자	5. 서비스 종사자	6. 농 림 어업직	7. 생산 및 관련종사자	8. 분 류 불능자
전 국	15,750,691 (100.0)	1,171,541 (7.4)	327,787 (2.1)	2,411,947 (15.3)	2,186,799 (13.9)	1,373,189 (8.7)	3,247,573 (20.6)	4,954,618 (31.5)	77,237 (0.5)
미 혼	3,737,529 (100.0)	380,988 (10.2)	9,158 (0.3)	972,731 (26.0)	411,628 (11.0)	239,956 (6.4)	271,646 (7.3)	1,446,641 (39.7)	4,781 (0.1)
15-19	547,357 (100.0)	11,249 (2.1)	1 (0.3)	136,575 (26.0)	44,825 (11.0)	24,489 (6.4)	40,062 (7.3)	290,146 (38.7)	10 (0.1)
20-24	1,612,262 (100.0)	164,473 (10.2)	1,025 (0.1)	492,557 (30.5)	170,237 (10.6)	95,336 (5.9)	104,356 (6.5)	581,970 (36.1)	2,308 (0.1)
25-29	1,177,637 (100.0)	159,543 (13.6)	4,540 (0.4)	282,241 (23.9)	144,483 (11.3)	75,852 (6.4)	83,337 (7.1)	425,435 (36.1)	2,206 (0.2)
30-34	297,589 (100.0)	30,741 (10.3)	2,450 (0.8)	50,797 (17.1)	38,798 (13.0)	29,385 (9.9)	30,084 (10.1)	115,119 (38.7)	215 (0.1)
35이상	102,684 (100.0)	14,982 (14.6)	1,142 (1.1)	10,561 (10.3)	13,285 (11.9)	14,894 (14.5)	13,807 (13.5)	33,971 (33.1)	42 (0.0)
유배우	11,188,978 (100.0)	771,746 (6.9)	312,956 (2.8)	1,418,543 (12.7)	1,659,917 (14.8)	962,223 (8.6)	2,661,332 (23.8)	3,330,032 (29.8)	72,229 (0.6)
15-19	4,512 (100.0)	52 (1.2)	- (-)	382 (8.5)	273 (6.0)	431 (9.6)	633 (14.0)	2,741 (60.7)	- (-)
20-24	152,078 (100.0)	9,122 (6.0)	311 (0.2)	20,802 (13.7)	18,803 (12.4)	13,225 (8.7)	19,360 (12.7)	68,701 (45.2)	1,754 (1.1)
25-29	1,204,960 (100.0)	137,680 (11.4)	11,719 (1.0)	214,849 (17.8)	182,582 (15.2)	83,684 (7.0)	110,950 (9.2)	446,092 (37.0)	17,404 (1.4)
30-34	2,233,361 (100.0)	199,270 (8.9)	46,803 (2.1)	400,862 (17.9)	360,889 (16.2)	170,658 (7.6)	229,648 (10.3)	805,507 (36.1)	19,724 (0.9)
35-39	1,951,493 (100.0)	136,818 (7.0)	61,385 (3.2)	279,394 (14.3)	328,232 (16.8)	183,023 (9.4)	262,138 (13.4)	684,204 (35.7)	16,299 (0.8)
40-44	1,597,171 (100.0)	91,364 (5.7)	61,575 (3.9)	196,551 (12.3)	267,350 (16.7)	166,987 (10.4)	291,815 (18.3)	511,995 (32.7)	9,534 (0.6)
45-49	1,343,216 (100.0)	69,877 (5.2)	52,884 (3.9)	134,756 (10.0)	207,020 (15.4)	143,394 (10.7)	350,790 (26.2)	378,885 (28.2)	5,610 (0.4)
50-54	1,166,862 (100.0)	58,327 (5.0)	39,008 (3.3)	102,635 (8.8)	149,098 (12.8)	108,185 (9.3)	449,373 (38.5)	258,760 (22.2)	1,476 (0.1)
55-59	795,099 (100.0)	40,521 (5.1)	23,088 (2.9)	52,701 (6.6)	85,464 (10.8)	61,047 (7.7)	408,249 (51.3)	123,611 (15.5)	418 (0.1)
60-64	400,047 (100.0)	20,208 (5.1)	10,048 (2.5)	11,667 (2.9)	36,953 (9.2)	21,322 (5.3)	264,760 (66.2)	35,079 (8.8)	10 (0.0)
65이상	340,179 (100.0)	8,507 (3.0)	6,135 (2.2)	3,944 (1.4)	23,253 (7.5)	10,267 (3.3)	273,616 (77.7)	14,457 (4.9)	-
사 별	656,675 (100.0)	11,634 (1.8)	3,603 (0.6)	10,812 (1.6)	89,186 (13.6)	124,428 (18.9)	296,040 (41.1)	120,878 (18.4)	93 (0.0)
이 혼	167,509 (100.0)	7,173 (4.3)	2,070 (1.2)	9,860 (5.9)	26,068 (15.5)	46,582 (27.8)	18,555 (11.1)	57,067 (34.1)	134 (0.1)
미 상	-	-	-	-	-	-	-	-	-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3,737,529명이 미혼이고 71.0%가 유배우자이며 4.2%가 사별한 상태이고 나머지 1.1%가 이혼한 상태로서 아직도 이혼 경력을 가진 유업자가 소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유배우 30-34세의 유업자가 17.0%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가 미혼 20-24세의 14.0% 및 3위가 미혼의 25-29세로서 13.6%를 보여주고 있어 대체로 젊은층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인 95.5%가 유배우이며 미혼의 경우는 2.8%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업자가 유배우로서 1위는 40-44세(18.8%), 2위는 35-39세(18.7%), 3위는 45-49세(16.1%)가 차지하여 유배우 상태의 유업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도 35-49세의 장년층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표 14〉에 의하면 미혼 유업자의 38.7%인 1,446,641명이 생산 및 관련 종사자이고 2위로서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가 26.0%인 972,731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3위로서 판매 종사자가 11.0%인 411,628명을 차지하고 있어 미혼 유업자의 대부분이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부문인 생산직 사무직 서어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15-19세의 미혼 유업자는 절반 이상인 53.0%가 생산 및 관련 종사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4세의 미혼 유업자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가 36.1%,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가 30.5%를 차지하고 있다. 25-29세의 미혼 유업자와 30-34세의 미혼 유업자의 경우 각각 36.1%와 38.7%가 생산 및 관련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다. 35세 이상의 미혼 유업자의 경우도 33.1%가 생산 및 관련종사자로서 근무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미혼 유업자의 경우 연령계층에 따른 직업별 유업자의 분포 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지 않다. 유배우 유업자의 경우 1위에 생산 및 관련종사자가 29.8%를 차지하고 있고 2위에 농림어업직이 23.8%를 점하고 있다.

20-24세의 유배우 유업자의 경우는 45.2%가 생산 및 관련종사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및 45-49세 등 모두의 경우에 생산 및 관련종사자가 단연 가장 큰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50-54세와 55-59세, 60-64세 및 65세이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농 현상에 따른 농가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여 농림어업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의 하락과 이농현상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을 통계치로서 명약관화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하겠다.

9. 교육정도, 성 및 산업별 유업자

〈표 15, 16〉을 이용하여 교육정도, 성 및 산업별 유업자에 대해서 보면 먼저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유업자의 66.4%인 10,454,135명이 남자 유업자이고 그 나머지 33.6%인 5,296,556명이 여자 유업자인 바 특히 남성, 또는 여성의 구성비가 뚜렷하게 전국의 구성비와 크게 다른 업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 유업자의 구성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유별나게 높은 경우는 광업(94.2%), 건설업(92.7%), 운수 창고 및 통신업(91.9%), 전기 가스 및 수도업(91.8%) 등을 들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전국치에 비하여 특이하게 여성 유업자의 구성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농림, 수렵업, 임업 및 어업(43.7%)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42.0%), 사회 및 개인서비스 업(36.6%)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농림, 수렵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표 15. 교육정도, 성 및 산업별 유업자

특 성	계	1. 농림 수렵 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 및 수도업		5. 건설업		6. 도소매 업 음식 숙박업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8.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		9. 사회 및 개인사업 서비스업		10. 기타분류 불능사업 서비스업	
		천	국	천	국	천	국	천	국	천	국	천	국	천	국	천	국	천	국	천	국
전	15,750,691 (100.0)	3,280,453 (100.0)	62,342 (100.0)	4,320,605 (100.0)	59,992 (100.0)	1,119,049 (100.0)	3,036,552 (100.0)	816,850 (100.0)	829,299 (100.0)	2,148,202 (100.0)	77,347 (100.0)										
남	10,454,135 (66.4)	1,846,772 (56.3)	58,706 (94.2)	2,952,013 (68.3)	55,087 (91.8)	1,037,502 (92.7)	1,761,636 (58.0)	743,930 (91.9)	560,608 (67.6)	1,361,035 (63.4)	76,826 (99.3)										
여	5,296,556 (33.6)	1,433,681 (43.7)	3,636 (5.8)	1,368,592 (31.7)	4,905 (8.2)	81,547 (7.3)	1,274,896 (42.0)	72,920 (8.9)	288,691 (32.4)	787,167 (36.6)	521 (0.7)										
국민학교	2,920,602 (18.5)	1,495,124 (45.5)	18,522 (29.7)	490,027 (11.3)	1,898 (3.2)	219,381 (19.6)	435,892 (14.4)	72,472 (8.9)	40,857 (4.9)	146,144 (6.8)	285 (0.4)										
중 학교	2,859,539 (18.2)	524,202 (16.0)	17,145 (27.5)	964,349 (22.3)	4,513 (7.5)	269,993 (24.1)	604,119 (19.9)	187,396 (22.9)	69,942 (8.4)	215,004 (10.0)	2,876 (3.7)										
고등학교	6,007,107 (38.1)	405,773 (12.4)	19,606 (31.4)	2,087,555 (48.3)	28,091 (46.8)	423,883 (37.9)	1,421,407 (37.9)	425,466 (52.1)	403,355 (48.6)	755,227 (35.1)	36,744 (47.5)										
초대, 전문대	733,478 (4.7)	25,622 (0.8)	1,851 (3.0)	199,503 (4.6)	6,259 (10.4)	6,259 (10.4)	46,189 (4.1)	40,690 (5.0)	62,761 (7.6)	198,762 (9.3)	7,614 (9.9)										
대학교	2,012,543 (12.8)	34,729 (1.1)	3,241 (5.2)	485,545 (11.3)	17,601 (29.3)	17,601 (29.3)	119,752 (10.7)	82,554 (10.1)	228,005 (27.5)	680,729 (31.7)	25,551 (33.0)										
대학원	207,059 (1.3)	1,160 (0.0)	165 (0.3)	29,905 (0.7)	1,483 (2.5)	1,483 (2.5)	5,814 (0.5)	3,893 (0.5)	18,934 (2.3)	126,385 (5.9)	4,267 (5.5)										
불취학	1,010,360 (6.4)	793,843 (24.2)	1,812 (2.9)	63,720 (1.5)	147 (0.3)	34,037 (0.3)	81,018 (3.1)	4,379 (0.5)	5,445 (0.7)	25,949 (1.2)	10 (0.0)										
미 상	3 (0.0)	-	-	1 (0.0)	-	-	-	-	-	2 (0.0)	-										

주: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표 16. 교육정도, 성 및 산업별 유업자

특 성	계	1. 농림 수렵 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 및 수도업		5. 건설업		6. 도소매 업 음식 주박업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8.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		9. 사회 및 개인사업 서비스업		10. 기타분류 불농사업	
		총계	(%)	총계	(%)	총계	(%)	총계	(%)	총계	(%)	총계	(%)	총계	(%)	총계	(%)	총계	(%)	총계	(%)
전 국	15,750,691 (100.0)	3,280,453 (20.8)	62,342 (0.4)	4,320,605 (27.4)	59,992 (0.4)	1,119,049 (7.1)	3,036,552 (19.3)	816,850 (5.2)	2,148,202 (13.6)	829,299 (5.3)	77,347 (0.5)										
남 자	10,454,135 (100.0)	1,846,772 (17.7)	58,706 (0.6)	2,952,013 (28.2)	55,087 (0.5)	1,037,502 (9.9)	1,761,636 (16.9)	743,930 (7.1)	1,361,035 (13.0)	560,608 (5.4)	76,826 (0.7)										
여 자	5,296,556 (100.0)	1,433,681 (27.1)	3,636 (0.1)	1,368,592 (25.8)	4,905 (0.1)	81,547 (1.5)	1,274,896 (24.1)	72,920 (1.4)	787,167 (14.8)	268,691 (5.1)	521 (0.0)										
국민학교	2,920,602 (100.0)	1,495,124 (51.2)	18,522 (0.6)	490,027 (16.8)	1,898 (0.1)	219,381 (7.5)	435,892 (21.2)	72,472 (2.5)	146,144 (5.0)	40,857 (1.4)	285 (0.0)										
중 학교	2,859,539 (100.0)	524,202 (18.3)	17,145 (0.6)	964,349 (33.7)	4,513 (0.2)	269,993 (9.4)	604,119 (21.1)	187,396 (6.6)	215,004 (7.5)	69,942 (2.5)	2,876 (0.1)										
고등학교	6,007,107 (100.0)	405,773 (6.7)	19,606 (0.3)	2,087,555 (34.7)	28,091 (0.5)	423,883 (7.1)	1,421,407 (23.7)	425,466 (7.1)	755,227 (12.6)	403,355 (6.7)	36,744 (0.6)										
초대, 전문대	733,478 (100.0)	25,622 (3.5)	1,851 (0.3)	199,503 (27.2)	6,259 (0.8)	6,259 (6.3)	46,189 (19.7)	40,690 (5.5)	198,762 (27.1)	62,761 (8.6)	7,614 (1.0)										
대학교	2,012,543 (100.0)	34,729 (1.7)	3,241 (0.2)	485,545 (24.1)	17,601 (0.9)	17,601 (6.0)	119,752 (16.6)	82,554 (4.1)	680,729 (33.8)	228,005 (11.3)	25,551 (1.3)										
대학원	207,059 (100.0)	1,160 (0.6)	165 (0.1)	29,905 (14.4)	1,483 (0.7)	1,483 (2.8)	5,814 (7.3)	3,893 (1.9)	126,385 (61.0)	18,934 (9.1)	4,267 (2.1)										
불특허학	1,010,360 (100.0)	793,843 (78.5)	1,812 (0.2)	63,720 (6.3)	147 (0.1)	34,037 (3.4)	81,018 (8.0)	4,379 (0.4)	25,949 (2.6)	5,445 (0.5)	10 (0.0)										
미 상	3 (100.0)	-	-	1 (33.3)	-	-	-	-	2 (66.7)	-	-										

주: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경우 여성 유업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이고,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의 경우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다같이 젊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력에 이들 산업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제 교육정도에 따른 산업별 유업자의 분포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유업자인 15,750,691명의 38.1%인 6,007,107명이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국민학교 졸업(18.5%)과 중학교 졸업(18.2%)의 경우 비슷한 정도의 구성비를 나타냈고 대학 졸업의 경우 유업자의 12.8%인 2,012,543명을 나타내서 학력수준의 향상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으며 초대, 전문대의 경우도 4.7%인 733,478명을 나타내고 있는 외에 대학원 졸업의 경우에도 1.3%인 207,059명을 기록하고 있어 상당한 정도의 유업자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있다. 불취학의 경우는 유업자의 6.4%인 1,010,360명을 나타내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불취학의 구성비는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제 산업별로 교육정도를 좀더 상세히 보면, 먼저 농림, 수렵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에는 상식선에서 예측했던 대로 국민학교 졸업(45.5%), 불취학(24.2%), 중학교 졸업(16.0%), 고등학교 졸업(12.4%)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농업의 현위치가 어떤요인에 의해서 초래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광업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31.4%), 국민학교 졸업(29.7%), 중학교 졸업(27.5%)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어 농림수렵업 임업 및 어업보다는 다소 학력수준이 높으나 다른 산업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흔히 예상할 수 있듯이 제조업의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48.3%), 중학교 졸

업(22.3%), 대학교 졸업(11.3%), 국민학교 졸업(11.3%)의 분포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다양한 수준의 학력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유업자가 고르게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종의 다양화가 갖추어져 있어 생산직, 사무직, 연구직등에 고른 분포를 가능케하고 있어 포괄범위가 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경우에는 쉽사리 예상할 수 있듯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고등학교 졸업자(46.8%)인데 특별히 대학교 졸업자(29.3%)와 초대·전문대 졸업(10.4%)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할 때 당연하게 받아 들여지는 상황이라고 보겠다.

전설업의 경우에는 난이도의 종류와 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해 학력별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났는 바 고등학교 졸업(37.9%)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학교 졸업(24.1%), 3위가 국민학교 졸업(19.6%)이며, 4위를 대학교 졸업(10.7%)이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의 경우에도 비교적 다양한 학력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46.8%)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중학교 졸업(19.9%)과 국민학교 졸업(14.4%)이 차지하고 있다. 운수 창고 및 통신업도 고등학교 졸업(52.1%)이 단연 돋보이는 점유율을 실현하고 있으며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48.6%)이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는 외에 대학 졸업(27.5%)의 구성비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있다. 제3차 산업중 가장 대학 졸업 유업자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산업으로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들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전문성과 정신노동을 희망하는 많은 대학졸업자들의 직업선택 우선 순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이제 <표 16>을 통하여 교육정도, 성 및 산업별 유업자를 보다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남자의 경우 10,454,135명의 유업자중 28.2%가 제조업에 17.7%가 농림, 수렵업, 임업 및 어업에 그리고 16.9%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5,296,555명의 유업자중 27.1%가 농림, 수렵업, 임업 및 어업에 25.8%가 제조업에 그리고 24.1%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은 유업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 농림수렵업, 임업 및 어업 그리고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의 순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국민학교 졸업자는 주로 농림, 수렵업, 임업 및 어업(51.2%)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림·어업부분의 낮은 생산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16.8%),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14.9%)에 분포되어 있다. 중학교 졸업자는 제조업(33.7%),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21.1%), 농림, 수렵업, 임업 및 어업(18.3%)의 순으로 종사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제조업(34.7%),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23.7%),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12.6%)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어 유업자 중의 핵심 구성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초대·전문대의 경우는 제조업(27.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27.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9.7%)의 순으로 나타나 현재 이들 계층의 사회적 역할의 점증 현상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다.

대학졸업자의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33.8%)이 가장 높은 점유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24.1%)과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16.6%)이 차지하고 있어 고학력 유

업자가 현대 한국경제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는 전향적 산업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원 졸업유업자의 경우는 다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로서 연구직 교직에 해당하는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61.0%)과 제조업(14.4%),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9.1%)에 분포되어 있으며 불취학의 경우는 그 대종인 78.5%가 농림, 수렵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고령 저학력 유업자의 대부분이 여기에 집중됨으로써 농림·어업산업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설명해 주고 있다.

10. 교육정도, 성 및 직업별 유업자

교육정도, 성 및 직업별 유업자를 <표 17, 18>을 이용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전문기술 및 관련 종사자는 1,171,541명중 62.3%인 730,034명이 남성 유업자이고 나머지 37.7%인 441,507명이 여성 유업자인데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유업자의 57.3%가 대학졸업자, 10.8%가 대학원 졸업자로서 가장 학력수준이 높은 산업분야라고 볼 수 있겠다.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남성 우위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여 남성 유업자가 96.4%를 차지하여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 나머지(3.6%)를 여성 유업자가 명맥을 이어 나가는 상황이다. 이 직업에 종사하는 유업자의 40.3%가 대학졸업자, 35.7%가 고등학교 졸업자, 초대·전문대가 6.6%, 대학원 졸업자가 5.2%를 각각 차지하여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55.1%가 고등학교 졸업자, 27.9%가 대학졸업자로서 전형적인 봉급생활자들의 학력별 분포를 대표한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판매종사자의 경우에는

표 17. 교육정도, 성 및 직업별 유업자

특 성 국	계	1.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2. 행정 및 관리자		3.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4. 판매 종사자		5. 서비스 종사자		6. 농림축산업 임업및 수렵업 종사자		7. 생산 및 관련 종사자		8. 불 류			
		종사자	(100.0)	종사자	(100.0)	종사자	(100.0)	종사자	(100.0)	종사자	(100.0)	종사자	(100.0)	종사자	(100.0)	종사자	(100.0)	종사자	(100.0)
전 국	15,750,691 (100.0)	1,171,541 (100.0)	327,787 (100.0)	2,411,947 (100.0)	2,186,799 (100.0)	1,373,189 (100.0)	3,247,573 (100.0)	4,954,618 (100.0)	77,237 (100.0)										
남 자	10,454,135 (66.4)	730,034 (62.3)	316,111 (96.4)	1,590,872 (66.0)	1,413,748 (64.6)	668,271 (48.7)	1,817,470 (56.0)	3,840,871 (77.5)	76,758 (99.4)										
여 자	5,296,556 (33.6)	441,507 (37.7)	11,676 (3.6)	821,075 (34.0)	773,051 (35.4)	704,918 (51.3)	1,430,103 (44.0)	1,113,747 (22.5)	479 (0.6)										
국민학교	2,920,602 (18.6)	8,672 (0.7)	10,905 (3.3)	35,944 (1.5)	281,287 (12.9)	296,816 (21.6)	1,489,362 (45.9)	797,341 (16.1)	275 (0.4)										
중 학교	2,859,539 (18.2)	16,340 (11.4)	28,624 (8.7)	109,248 (4.5)	407,870 (18.6)	349,968 (25.5)	515,300 (15.9)	1,429,313 (28.8)	2,876 (3.7)										
고등학교	6,007,107 (38.1)	188,589 (16.1)	116,825 (35.7)	1,327,844 (55.1)	1,054,113 (48.2)	546,275 (39.8)	393,771 (12.1)	2,343,016 (47.3)	36,674 (47.5)										
초대, 전문대	733,478 (4.7)	156,911 (13.4)	21,752 (6.6)	220,569 (9.1)	116,146 (5.3)	48,186 (3.5)	24,214 (0.8)	138,007 (2.8)	7,603 (9.8)										
대학교	2,012,543 (12.8)	671,461 (57.3)	132,037 (40.3)	673,021 (27.9)	265,673 (12.1)	73,556 (5.3)	31,024 (0.9)	140,239 (2.9)	25,532 (33.1)										
대학원	207,059 (1.3)	126,431 (10.8)	16,946 (5.2)	42,671 (1.8)	9,996 (0.5)	2,561 (0.2)	818 (0.0)	3,369 (0.1)	4,267 (5.5)										
불 취학	1,010,360 (6.4)	3,136 (0.3)	698 (0.2)	2,560 (0.1)	51,714 (2.4)	55,826 (4.1)	793,084 (24.4)	103,332 (2.0)	10 (0.0)										
미 상	3 (0.0)	-	-	-	-	1 (0.0)	-	1 (0.0)	-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48.2%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차지하여 학력 상으로는 가장 평균치에 접근하는 유업자들이 종사하는 직업이라고 사료된다.

서비스직 종사자는 1,373,189명으로서 남성 유업자가 48.7%에 불과한 반면 여성 유업자가 51.3%를 차지하여 유일하게 여성 유업자가 수적인 측면에서 우세한 직업분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고등학교(39.8%), 중학교(25.5%), 국민학교 졸업자(21.6%)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는 3,247,573명으로서 그중 56.0%인 1,817,470명이 남성 유업자이며 그 나머지(44.0%)를 여성 유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바 학력별로는 국민학교 졸업(45.9%), 중학교 졸업(15.9%), 고등학교 졸업(12.1%)의 순으로 나타나 있어 저학력을 가진 유업자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직업으로 사료된다.

생산 관련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의 경우는 77.5%가 남성 유업자이고 나머지 22.5%가 여성 유업자인 바 고등학교 졸업자(47.3%), 중학교 졸업(28.8%), 국민학교 졸업(16.1%)의 순으로 학력별 분포를 보이고 있어 생산 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전형적 학력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표 18〉을 통하여 교육정도, 성 및 직업별 유업자 상황을 좀더 상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자. 먼저 남성 유업자를 보면 남성 유업자 10,454,135명의 36.8%가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로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이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로서 17.4%를 점하고 있으며 3위에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가 15.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유업자의 경우를 보면 5,296,556명중 27.0%가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

업에 고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을 생산 및 관련직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21.0%)가 차지하고 있고 3위를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15.5%)가 점유하고 있다.

국민학교 졸업자의 경우를 보면 그 대종인 51.0%가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7.3%가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 노무자로 일하고 있어 저학력 근로자가 단순 현장 근로자로서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도 50.0%가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8.0%가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로서 일하고 있어 국민학교 졸업자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를 보면, 39.0%인 2,343,016명이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로 근무하고 있고 2위에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로서 22.1%가 근무하고 있으며 3위에 판매종사자가 17.5% 점유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초대·전문대 졸업 유업자는 733,478명으로 30.1%가 사무관련직 종사자, 21.4%가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18.8%가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그리고 15.8%가 판매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음으로써 다양한 직업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이들 학력의 소유자들이 탄력적으로 여러 곳에 적응하기 쉬운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초급대학 및 전문대의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정부의 최근의 조치는 바람직한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보겠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33.4%)와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가 대종

표 18. 교육정도, 성 및 직업별 유업자

특 성	계	1. 전문기술		2. 행정 및		3. 사무 및		4. 판 매		5. 서비스		6. 농림축산업		7. 생산 및		8. 불 류		
		및 관련직	종사자	관리자	종사자	관련직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불 능자
진 국	15,750,691 (100.0)	1,171,541 (7.4)	327,787 (2.1)	2,411,947 (15.3)	2,186,799 (13.9)	1,372,189 (8.7)	3,247,573 (20.6)	4,954,618 (31.5)	77,237 (0.5)									
남 자	10,454,135 (100.0)	730,034 (7.0)	316,111 (3.0)	1,590,872 (15.2)	1,413,748 (13.5)	668,271 (6.4)	1,817,470 (17.4)	3,840,871 (36.8)	76,758 (0.7)									
여 자	5,296,556 (100.0)	441,507 (8.4)	11,676 (0.2)	821,075 (15.5)	773,051 (14.6)	704,918 (13.3)	1,430,103 (27.0)	1,113,747 (21.0)	479 (0.0)									
국민학교	2,920,602 (100.0)	8,672 (0.3)	10,905 (0.4)	35,944 (1.2)	281,287 (9.6)	296,816 (10.2)	1,489,362 (51.0)	797,341 (27.3)	275 (0.0)									
중 학 교	2,859,539 (100.0)	16,340 (0.6)	28,624 (1.0)	109,248 (3.8)	407,870 (14.3)	349,968 (12.2)	515,300 (18.0)	1,429,313 (50.0)	2,876 (0.1)									
고등학교	6,007,107 (100.0)	188,589 (3.1)	116,825 (2.0)	1,327,844 (22.1)	1,054,113 (17.5)	546,275 (9.1)	393,771 (6.6)	2,343,016 (39.0)	36,674 (0.6)									
초대, 전문대	733,478 (100.0)	156,911 (21.4)	21,752 (3.0)	220,569 (30.1)	116,146 (15.8)	48,186 (6.6)	24,214 (3.3)	138,007 (18.8)	7,603 (1.0)									
대 학 교	2,012,543 (100.0)	671,461 (33.4)	132,037 (6.6)	673,021 (33.4)	265,673 (13.2)	73,556 (3.7)	31,024 (1.5)	140,239 (6.9)	25,532 (1.3)									
대 학 원	207,059 (100.0)	126,431 (61.1)	16,946 (8.2)	42,671 (20.6)	9,996 (4.8)	2,561 (1.2)	818 (0.4)	3,369 (1.6)	4,267 (2.1)									
불 취 학	1,010,360 (100.0)	3,136 (0.3)	698 (0.1)	2,560 (0.3)	51,714 (5.1)	55,826 (5.5)	793,084 (78.5)	103,332 (10.2)	10 (0.0)									
미 상	3 (100.0)	-	-	-	-	1	-	1	-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을 차지하고 있어 고학력 유업자가 선호하는 직종이 어떤 것인가를 뚜렷이 알 수 있겠다.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는 단연,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20.6%)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학력수준의 향상에 따라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의 최종학력 수준은 점차 더 높아질 전망이다.

불취학의 경우에는 흔히 쉽사리 예상되듯이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가 가장 큰 비중(78.5%)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인다.

11. 거처의 종류, 가구의 규모 및 유업자 수별 가구

이제 <표 19, 20>을 이용하여 거처의 종류 가구의 규모 및 유업자 수별 가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조사표 상에 나타난 11,354,912명의 유업자중 29.5%가 4인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19.1%를 차지한 3인 가구와 18.8%를 차지한 5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고, 11,354,912명의 99.7%가 주택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0.3%만이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9.7%의 주택거주 유업자 중에서도 단독주택에 74.4%, 아파트에 14.0%가 살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다수 유업자들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업자의 수가 0인 가구는 1,154,488명으로 그 중 33.3%가 1인 가구, 27.9%가 2인 가구, 17.3%가 3인 가구에 살고 있고, 유업자의 수가 1인인 경우는 4인 가구가 34.7%, 3인 가구가 21.3%, 5인 가구가 16.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 유업자의 수가 2인인 경우에는 28.2%가 4인 가구, 24.5%가 5인 가구, 17.2%가 3인 가구의 순으로 되어 있고 유업자의 수가 3인인 경우에는 5인 가구가 32.4%, 4인 가구가 21.2%, 6인 가구가 16.3%의 순으로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유업자의 수가 4인인 경우에는 30.8%가 5인 가구, 7인 이상 가구가 28.3%, 6인 가구가 2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업자의 수가 5인인 경우에는 42.4%가 5인 가구, 39.8%가 7인 이상 가구, 17.8%가 6인 가구 등으로 보고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6인의 유업자를 가진 경우에는 81.3%가 7인 이상 가구이며 그 나머지(18.7%)를 6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20>을 이용하여 거처의 종류, 가구의 규모 및 유업자 수별 가구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자. <표 20>에 나타난 조사대상자 11,354,912명의 유업자중 55.4%인 6,291,586명이 1인의 유업자를, 26.5%가 2인의 유업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중 62.4%는 1인의 유업자를 가진 반면 나머지 37.6%는 0명이 유업자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2인 가구 중 47.6%가 1인의 유업자를 31.8%가 2인의 유업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3인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유업자가 62.0%, 2인 유업자가 24.0%로 보고 되었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65.1%가 1인 유업자, 25.3%가 2인 유업자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5인 가구의 경우에는 48.5%가 1인 유업자, 34.5%가 2인 유업자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6인 가구의 경우에는 37.6%가 2인의 유업자를, 36.6%가 1인의 유업자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지막으로 7인 이상의 가구는 35.6%가 2인의 유업자를, 그리고 21.1%가 3인의 유업자를 각각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주택에 거주하는 유업자의 경우에는 55.4%가 1인의 유업자를, 26.5%가 2인의 유업자를 거느린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2.6%가 1인의 유업자를, 27.9%가 2인의 유업자를 가진 것으로 보고 되었다.

표 19. 거처의 종류, 가구의 규모 및 유업자 수별 가구

특 성	계	0 인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전 국	11,354,912 (100.0)	1,154,488 (100.0)	6,291,586 (100.0)	3,012,854 (100.0)	654,333 (100.0)	186,215 (100.0)	44,316 (100.0)	11,120 (100.0)
1인가구	1,021,481 (9.0)	383,959 (33.3)	637,522 (10.1)	—	—	—	—	—
2인가구	1,565,713 (13.8)	322,462 (27.9)	745,507 (11.8)	497,744 (16.5)	—	—	—	—
3인가구	2,163,272 (19.1)	199,769 (17.3)	1,340,974 (21.3)	519,057 (17.2)	103,472 (15.8)	—	—	—
4인가구	3,350,728 (29.5)	147,517 (12.8)	2,180,262 (34.7)	847,864 (28.2)	138,826 (21.2)	36,259 (19.5)	—	—
5인가구	2,140,073 (18.8)	76,055 (6.6)	1,037,727 (16.5)	738,216 (24.5)	211,826 (32.4)	57,458 (30.8)	18,791 (42.4)	—
6인가구	670,692 (5.9)	16,514 (1.4)	245,631 (3.9)	252,092 (8.4)	106,667 (16.3)	29,840 (21.4)	7,874 (17.8)	2,074 (18.7)
7인이상가구	442,953 (3.9)	8,212 (0.7)	103,963 (1.7)	157,881 (5.2)	93,542 (14.3)	52,658 (28.3)	17,651 (39.8)	9,046 (81.3)
주 택	11,316,022 (99.7)	1,150,420 (99.6)	6,270,322 (99.7)	3,002,697 (99.7)	652,269 (99.7)	185,331 (99.5)	44,016 (99.3)	10,967 (98.6)
단독주택	8,446,623 (74.4)	931,047 (80.6)	4,439,848 (70.6)	2,357,215 (78.3)	525,384 (80.3)	151,843 (81.5)	33,195 (74.9)	8,091 (72.8)
아 파 트	1,693,018 (14.9)	133,020 (11.5)	1,160,632 (18.4)	326,424 (10.8)	56,058 (8.6)	12,252 (6.6)	3,820 (8.6)	812 (7.3)
연립주택	589,419 (5.2)	47,440 (4.1)	362,416 (5.8)	133,204 (4.4)	34,857 (5.3)	9,267 (5.0)	1,977 (5.5)	258 (2.3)
다세대주택	124,479 (1.1)	9,061 (0.8)	76,984 (1.2)	28,055 (0.9)	7,973 (1.2)	2,020 (1.1)	335 (0.7)	51 (0.4)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462,483 (4.1)	29,852 (2.6)	230,442 (3.7)	157,799 (5.3)	27,997 (4.3)	9,949 (5.3)	4,689 (10.6)	1,775 (15.8)
주택이외의 거 처	38,890 (0.3)	4,068 (0.4)	21,264 (0.3)	10,157 (0.3)	2,064 (0.3)	884 (0.5)	300 (0.7)	153 (1.4)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68.5%가 1인의 유업자를, 19.3%가 2인의 유업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의 양태를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거주형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61.5%가 1인의 유업자를, 22.6%가 2인의 유업자를 가지고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이와 극히 유사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의 경우에는 49.8%가 유업자를, 34.1%가 2인 유업자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54.7%가 1인의 유업자를 26.1%가 2인의 유업자를 각각 거느린 것으로 보고 되었다.

표 20. 거처의 종류, 가구의 규모 및 유업자 수별 가구

특 성	계	0 인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전 국	11,354,912 (100.0)	1,154,488 (100.0)	6,291,586 (100.0)	3,012,854 (100.0)	654,333 (100.0)	186,215 (100.0)	44,316 (100.0)	11,120 (100.0)
1인가구	1,021,481 (9.0)	383,959 (33.3)	637,522 (10.1)	-	-	-	-	-
2인가구	1,565,713 (13.8)	322,462 (27.9)	745,507 (11.8)	497,744 (16.5)	-	-	-	-
3인가구	2,163,272 (19.1)	199,769 (17.3)	1,340,974 (21.3)	519,057 (17.2)	103,472 (15.8)	-	-	-
4인가구	3,350,728 (29.5)	147,517 (12.8)	2,180,262 (34.7)	847,864 (28.2)	138,826 (21.2)	36,259 (19.5)	-	-
5인가구	2,140,073 (18.8)	76,055 (6.6)	1,037,727 (16.5)	738,216 (24.5)	211,826 (32.4)	57,458 (30.8)	18,791 (42.4)	-
6인가구	670,692 (5.9)	16,514 (1.4)	245,631 (3.9)	252,092 (8.4)	106,667 (16.3)	29,840 (21.4)	7,874 (17.8)	2,074 (18.7)
7인이상가구	442,953 (3.9)	8,212 (0.7)	103,963 (1.7)	157,881 (5.2)	93,542 (14.3)	52,658 (28.3)	17,651 (39.8)	9,046 (81.3)
주 택	11,316,022 (99.7)	1,150,420 (99.6)	6,270,322 (99.7)	3,002,697 (99.7)	652,269 (99.7)	185,331 (99.5)	44,016 (99.3)	10,967 (98.6)
단독주택	8,446,623 (74.4)	931,047 (80.6)	4,439,848 (70.6)	2,357,215 (78.3)	525,384 (80.3)	151,843 (81.5)	33,195 (74.9)	8,091 (72.8)
아 파 트	1,693,018 (14.9)	133,020 (11.5)	1,160,632 (18.4)	326,424 (10.8)	56,058 (8.6)	12,252 (6.6)	3,820 (8.6)	812 (7.3)
연립주택	589,419 (5.2)	47,440 (4.1)	362,416 (5.8)	133,204 (4.4)	34,857 (5.3)	9,267 (5.0)	1,977 (5.5)	258 (2.3)
다세대주택	124,479 (1.1)	9,061 (0.8)	76,984 (1.2)	28,055 (0.9)	7,973 (1.2)	2,020 (1.1)	335 (0.7)	51 (0.4)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462,483 (4.1)	29,852 (2.6)	230,442 (3.7)	157,799 (5.3)	27,997 (4.3)	9,949 (5.3)	4,689 (10.6)	1,775 (15.8)
주택이외의 거 처	38,890 (0.3)	4,068 (0.4)	21,264 (0.3)	10,157 (0.3)	2,064 (0.3)	884 (0.5)	300 (0.7)	153 (1.4)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제활동.

12. 세대구성 및 가구주의 직업별가구

세대구성 및 가구주의 직업별가구에 대하여서는 (표 21, 22)를 이용해 보기로 하자. (표 21)에 의하면, 조사표에 나타난 9,272,291명의 유업자중 92.0%는 혈연가구로 살고 있으며 6.9%는 단독가구로, 나머지 1.1%는 비혈연가구

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혈연가구중에서도 70.0%는 2세대 가구로 11.6%는 3세대 가구, 10.1%는 1세대 가구로 나타나 의외로 2-3세대 가구가 함께 사는 유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제 (표 22)를 이용하여 보다 상세한 세대구성 및 가구주의 직업별 가구에 대해 보기로

표 21. 세대구성 가구주의 직업별 가구

세대구성	계	1.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2. 행정 및 관리자		3.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4. 판매 종사자		5. 서비스 종사자		6. 농림축산업 임업 및 수렵업 종사자		7. 생산 및 관련 종사자		8. 불류 불능자	
		총사자	(%)	총사자	(%)	총사자	(%)	총사자	(%)	총사자	(%)	총사자	(%)	총사자	(%)	총사자	(%)
전국	9,272,291 (100.0)	651,287 (100.0)	304,755 (100.0)	1,352,339 (100.0)	1,296,580 (100.0)	782,247 (100.0)	1,704,874 (100.0)	3,108,701 (100.0)	71,508 (100.0)								
계	8,529,571 (92.0)	581,460 (89.3)	297,871 (97.8)	1,249,759 (92.4)	1,208,963 (93.2)	672,416 (86.0)	1,587,082 (93.1)	2,863,210 (92.1)	68,810 (96.2)								
별 1세대	339,532 (10.1)	77,819 (12.0)	16,942 (5.6)	139,801 (10.3)	107,136 (82.)	55,745 (71.)	269,360 (15.8)	267,040 (8.6)	5,689 (8.0)								
연 2세대	6,486,652 (70.0)	431,549 (66.3)	239,575 (78.6)	961,773 (71.1)	968,332 (74.7)	539,584 (69.0)	959,235 (56.3)	2,326,759 (74.8)	59,845 (83.7)								
가 3세대	1,074,781 (11.6)	70,530 (10.8)	40,270 (13.2)	145,481 (10.8)	130,602 (10.1)	75,580 (9.7)	344,289 (20.2)	264,774 (8.5)	3,255 (4.5)								
구 4세대	28,606 (0.3)	1,562 (0.2)	1,084 (0.4)	2,704 (0.2)	2,893 (0.2)	1,507 (0.2)	14,198 (0.8)	4,637 (0.2)	21 (0.0)								
단독가구	637,408 (6.9)	59,246 (9.1)	5,828 (1.9)	88,685 (6.6)	78,752 (6.1)	89,863 (11.5)	114,280 (6.7)	198,435 (6.4)	2,339 (3.3)								
월연가구	105,312 (1.1)	10,581 (1.6)	1,056 (0.3)	13,895 (1.0)	8,865 (0.7)	19,968 (2.5)	3,532 (0.2)	47,056 (1.5)	359 (0.5)								

주: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제6권, 경제활동

표 22. 세대구성 및 가구주의 직업별 기구

세대구성	계	1.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2. 행정 및 관리자		3.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4. 판매 종사자		5. 서비스 종사자		6. 농림축산업 임업 및 수렵업 종사자		7. 생산 및 관련 종사자		8. 불 류 불능자	
		계	(%)	계	(%)	계	(%)	계	(%)	계	(%)	계	(%)	계	(%)	계	(%)
전 국	9,272,291 (100.0)	651,287 (7.0)	304,755 (3.3)	1,352,339 (14.6)	1,296,580 (14.0)	782,247 (8.4)	1,704,874 (18.4)	3,108,701 (33.5)	71,508 (0.8)								
계	8,529,571 (100.0)	581,460 (6.8)	297,871 (3.5)	1,249,759 (14.6)	1,208,963 (14.2)	672,416 (7.9)	1,587,082 (18.6)	2,863,210 (33.6)	68,810 (0.8)								
월 가 구	939,532 (100.0)	77,819 (8.3)	16,942 (1.8)	139,801 (14.9)	107,136 (11.4)	55,745 (5.9)	269,360 (28.7)	267,040 (28.4)	5,689 (0.6)								
연 가 구	6,486,652 (100.0)	431,549 (6.7)	239,575 (3.7)	961,773 (14.8)	968,332 (14.9)	539,584 (8.3)	959,235 (14.8)	2,326,759 (35.9)	59,845 (0.9)								
가 구	1,074,781 (100.0)	70,530 (6.6)	40,270 (3.8)	145,481 (13.5)	130,602 (12.2)	75,580 (7.0)	344,289 (32.0)	264,774 (24.6)	3,255 (0.3)								
구	28,606 (100.0)	1,562 (5.5)	1,084 (3.8)	2,704 (9.4)	2,893 (10.1)	1,507 (5.3)	14,198 (49.6)	4,637 (16.2)	21 (0.1)								
단 독 가 구	637,408 (100.0)	59,246 (9.3)	5,828 (0.9)	88,685 (13.9)	78,752 (12.4)	89,863 (14.1)	114,260 (17.9)	198,435 (31.1)	2,339 (0.4)								
월 연 가 구	105,312 (100.0)	10,581 (10.0)	1,056 (1.0)	13,895 (13.2)	8,865 (8.4)	19,968 (19.0)	3,532 (3.4)	47,056 (44.7)	359 (0.3)								

주 : ()는 구성비인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제6권, 경제활동

하자. 혈연가구 전체 8,529,571명 중 33.6%는 생산 및 관련직 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18.6%를 차지한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혈연가구 중 1세대 가구는 28.7%가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반하여 28.4%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로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대 가구의 경우에는 35.9%가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단순노무자로 일하고 있고 3세대의 경우에는 32.0%가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로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4세대 가구의 경우에는 49.6%가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로서 근무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혈연가구에 비해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대체로 혈연가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비혈연 가구에는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종사자가 특별히 적은 것이 특징이다.

13. 자녀수 및 부부의 유업상태별 가구

자녀수 및 부부의 유업상태별 가구에 대해서는 <표 23, 24>를 통하여 보기로 하자. 조사표에 나타난 9,754,960명의 유업자중 88.4%가 유자녀 가구인 반면 11.6%는 무자녀 가구로 나타났으며 유자녀 가구 중에서도 39.5%는 2명의 자녀, 25.7%는 1명의 자녀, 17.6%는 3명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를 이용하여 자녀수 및 부부의 유업상태별 가구를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자. 조사표에 나타난 9,754,960명중 88.7%인 8,648,867명 이 부부가 동거하는 가구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54.2%인 5,291,285명이 부 만

유업자의 경우이며, 부부 모두 유업자의 구성비는 24.4%이고 부부 모두 무업자의 경우는 8.0%, 모 만 유업자의 경우가 나머지 2.1%로 나타났다. 또 부자 만으로 구성된 유업자중 2.4%, 모자 만으로 구성된 유업자도 8.9%에나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1,130,756명으로서 그 중 42.6%가 부만 유업자, 36.9%가 부부 모두 유업자, 17.4%가 부부 모두 무업자, 나머지 3.1%가 모 만 유업자인 경우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우리는 통계청에서 1990년에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을 통하여 발표한 경제활동에 대한 여러가지 통계를 이용하여 유업자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제 지금까지 분석해 본 여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 나가야 할 노동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기로 하자.

II. 1990년대 노동정책의 방향

이제 부록에 수록된 각종 연대별 고용통계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유업자에 관한 여러가지 분석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제 2의 도약을 유도해 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제반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본 각종 통계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양면에서 크나 큰 양적 변화 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먼저 공급측면에서 본 노동력의 구조변화는 여성화, 고령화, 고학력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수요측면에서의 노동력의 구조변화는 서비스 산업의 고용증대, 제조업의 고용감소, 시간제 취업 및 일고(日雇)의 증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노동력 공급측면의 구조변화와 노동정책

이제 공급측면의 구조변화인 노동력의 여성

화, 고령화, 고학력화에 따른 상황변화에 알맞게 노동정책을 적절하게 구사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력의 대부분이 아직도 저학력의 농촌인력 위주이고 생산현장이나 서비스업종의 생산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연령층의 여성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법, 호적법, 상속법체계 등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며 명실상부하게 여성의 사회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회전반적 분위기의 조성과 더불어 탁아소, 유아원등의 공동 육아시설을 대폭적으로 늘려 시간제 취업, 일고의 형태 또는 상시고의 형태로 여성의 취업을 보다 쉽게 해 줄 수 있는 사회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성의 고용증대는 학력수준의 제고도 중요하지만 여성특유의 섬세함과 치밀함을 십분 살릴수 있는 분야의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내실있게 실시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된다.

노동력 연령 구조상의 고령화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aging phenomena)추세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며 특히 고학력화 현상 또한 경제발전의 결과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수요체제에 발맞추기 위한 조화로운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대학졸업 정원제 실시에 따른 대학졸업 정원의 대폭적 확대로 대학 졸업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리사회의 고학력 선호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이라고 보겠다.

노동력인구의 고령화와 고학력화는 동시에 발생하기 쉬운데 15-19세와 20-24세 모두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진학율의 증가로 노동력 인구는 빠져나가고 그 대신 그 여백을 청·장년층의 노동력이 메꾸어 나가는 현상은 장기적 경제발전을 다지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지나친 고학력화가 높은 실업율을 배태한다면 이것도 무비판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고학력화를 추구하면서도 우리경제가 필요로 하는 이공학계열 지원자를 대폭 확충하는 가운데 이들 분야의 대학에 대한 대폭적 시설투자(실험 실습 설비)와 교수요원의 확충으로 내실을 기하며 졸업 후 생산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산성이 제고된 졸업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현실은 너무나도 질적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졸업생수의 대폭적 증대 만을 생각하는 양적 성장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2. 노동력 수요측면의 구조변화와 노동정책

다음으로 인력 공급측면에서 구조변화와 함께 수요측면에서의 구조변화인 제조업의 고용 감소와 서비스산업의 고용증대, 시간제 취업 및 日雇의 증대현상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경제성장의 결과 1인당 국민총생산은 1960년대의 79\$에서 1990년에는 5,659\$, 1991년에 6,518\$, 1992년에 6,749\$에 달하였고,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보여, 1960년에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국민총생산(GNP)의 36.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0년에는 9.0%로 크게 줄었으며 1991년과 1992에는 각각 8.0%와 7.6%로 계속 줄었다.

광공업의 경우에는 1960년의 15.9%에서 1990년에는 29.4%로 거의 배가 되었고 1991

년과 1992년에는 1990년에 비하여 28.6%와 27.6%로 다소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 이채를 보였고,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의 경우에는 1960년의 47.3%에서 1990년에는 61.6%로 늘어났고 1991년과 1992년에는 각각 63.4% 및 64.8%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달성되어 가는 와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30%를 넘어서 32-34%까지 증대되지 못한 채 제조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력이 생산성 증대가 극히 제한된 서비스산업으로 대거 이동해 가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일반 국민들의 근시안적인 태도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겠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의 향상은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팽창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므로 파격적인 현상은 아니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3차 산업 중 특히 서비스산업에의 비정상적 팽창이 너무 빨리 찾아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1인당 GNP가 17,000-18,000달러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전에는 제조업의 급격한 비중 감소가 달갑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과소비적 분야의 투자를 자제하며 제조업 분야는 물론 다른 산업분야도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하여 수출과 기술개발에 힘쓰는 한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려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뒷받침하고 선진국 경제에로 성큼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과도한 임금상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제 취업 및 日雇의 증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장년 여성과 고령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바 이는 이들이 한계근로자(mar-

ginal workers)의 성격을 가지면서 젊은 노동력의 제조업 기피로 생긴 공백을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시간제 취업 및 日雇의 증대에 원만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公共 및 社内育兒施設의 획기적증대와 老人層 勞動力의 勞動市場 進入을 용이하게 해줄수 있도록 직업재훈련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유휴 노인 노동력을 유인하는 자극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조장호, 윤승진, 윤여진,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책방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 경제연구센터, 1992.
- 박준경, 김정호,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 어수봉,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1991.
- 이근희, 조명기, 여성노동력의 특성과 이동, 한국생산성본부, 1991.
- 김수곤, 심경옥,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84.
- 홍문식의, 2000년대를 향한 인구정책구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구성열, 우리나라 인력수급구조의 변화추이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송병준, 인력수요구조변화와 산업인력정책방향, 산업연구원, 1992.
- 이효수, 고학력화 현상과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1991.
- 신영수, 여성노동시장의 중·장기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1.
- 어수봉, 노동시장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1.
- 박명수, 중·장기 노동력수급전망, 한국노동연구원, 1990.

- 김치호, 노동력수급문제와 정책과제,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2. 12.
-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 분석, 제 6
권 제 2 호, 1993.
- 한국통계협회, 한국의 사회 지표, 1992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연보, 1992
- 한국통계협회, 한국통계 연감, 1992.
-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6 권, 경
제활동, 1992.
-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 7 권, 산
업 직업 (중.소분류), 1990.
- Ehrenberg, Ronald G, Modern Labor Econom-
ics,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1
- Reynolds Lloyd G, Masters, Stanley H,
Moser, Colletta H, Labor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 Prentice Hall,
1991
- Bassi, Laurie J, Crawford, David J,
Ehrenberg, Ronald G, Edited,
Research in Labor Economics and
Public Policy, Jai Press, Inc, Vol.,
1990.

(부 록)

표 1. 주요 고용동향 추이

(단위: 천명, %)

	'88		'89		'90		'91		'92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5세이상 인구	29,602	2.2	30,217	2.1	30,801	1.9	31,367	1.8	31,851	1.5
경제활동 인구	17,305	2.6	17,971	3.8	18,487	2.9	19,012	2.8	19,384	2.0
(참 가 율)	(59.5)	—	(59.5)	—	(60.0)	—	(60.6)	—	(60.9)	—
취 업 자	16,870	3.2	17,511	3.8	18,036	3.0	18,576	3.0	18,921	1.9
농 가	3,653	△1.9	3,627	△0.7	3,516	△3.1	3,373	△4.1	3,306	△2.0
비 농 가	13,217	4.6	13,884	5.0	14,520	4.6	15,202	4.7	15,615	2.7
농 립 어 업	3,484	△2.7	3,418	△1.9	3,292	△3.7	3,103	△5.7	3,025	△2.5
광 공 업	4,807	4.5	4,933	2.6	4,928	△0.1	5,005	1.6	4,828	△3.5
제 조 업	4,667	5.7	4,480	3.7	4,847	0.1	4,936	1.8	4,768	△3.4
SOC 및 기타	8,579	5.0	9,161	6.8	9,816	7.1	10,468	6.6	11,068	5.7
자 영 업 주	5,093	2.0	5,052	△0.8	5,100	1.0	5,260	3.1	5,442	3.5
무 급 가 족	2,167	△0.1	2,105	△2.9	2,071	△1.6	2,029	△2.0	1,974	△2.7
상 시 고	8,114	5.9	8,635	6.4	9,034	4.6	9,464	4.8	9,738	2.9
일 고	1,496	△2.2	1,719	14.9	1,831	6.5	1,822	△0.5	1,767	△3.0
실 업 자	435	16.2	460	5.7	451	△2.0	436	△3.3	464	6.4
(실 업 율)	(2.5)	—	(2.6)	—	(2.4)	—	(2.3)	—	(2.4)	—

자료: 통계청, 1992, 경제활동 인구 연보

표 2. 경제활동 인구 동향 추이

(단위: 천명, %)

	'85	'88	'89	'90	'91	'92
15세이상 인구	27,553	29,602	30,217	30,801	31,367	31,851
(대전년증가율)	(2.6)	(2.2)	(2.1)	(1.9)	(1.8)	(1.5)
경제활동 인구	15,592	17,350	17,971	18,487	19,012	19,384
(대전년증가율)	(4.0)	(2.6)	(3.8)	(2.9)	(2.8)	(2.0)
참 가 율	56.6	58.5	59.5	60.0	60.6	60.9
남 자	72.3	72.9	73.3	73.9	74.7	75.3
여 자	41.9	45.0	46.5	47.0	47.3	47.3
60세 이상	29.3	32.9	34.8	35.8	36.3	38.1

자료: 통계청, 1992, 경제활동 인구 연보

표 3. 가구유형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75	'80	'85	'87	'88	'89	'90	'91	'92
취업자	11,692	13,683	14,970	16,354	16,870	17,511	18,036	18,576	178,921
농가	5,511	(5,108)	3,806	3,724	3,653	3,627	3,516	3,373	3,306
(구성비)	(47.1)	(37.3)	(25.4)	(22.8)	(21.7)	(20.7)	(19.5)	(18.2)	(17.5)
비농가	6,181	8,575	11,165	12,630	13,217	13,884	14,520	15,202	15,615
(구성비)	(52.9)	(62.7)	(74.6)	(77.2)	(78.3)	(79.3)	(80.5)	(81.8)	(82.5)

자료 : 통계청, 1992,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4.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산업분류	'75	'80	'85	'87	'88	'89	'90	'91	'92
전산업	11,692	13,683	14,907	16,354	2.5	2.6	2.4	2.3	2.4
전년증감	271	84	541	3,724	5.4	5.2	5.4	6.8	7.4
(증감률)	(2.3)	(0.6)	(3.7)	(22.8)	7.8	7.5	8.1	10.3	11.3
구성비	100.0	100.0	100.0	10.6	8.4	6.3	5.9	8.0	9.8
농림어업	5,339	4,654	3,733	3,580	3,484	3,418	3,292	3,103	3,025
전년증감	△142	△212	△181	△82	△96	△66	△126	△189	△78
(증감률)	(△2.7)	(△4.6)	(△4.8)	(△2.2)	(△2.7)	(△1.9)	(△3.7)	(△5.7)	(△2.5)
구성비	45.7	34.6	24.9	21.9	20.7	18.3	18.3	16.7	16.0
광공업	2,235	3,079	3,659	4,602	4,807	4,933	4,928	5,005	4,828
전년증감	208	△130	168	589	205	126	△5	77	△177
(증감률)	(9.3)	(△4.2)	(4.6)	(14.7)	(4.5)	(2.6)	(△0.1)	(1.6)	(△3.5)
구성비	19.1	22.5	24.5	28.1	28.5	28.2	27.3	26.9	25.5
SOC, 기타	4,118	5,951	7,578	8,172	8,579	9,160	9,816	10,468	11,068
전년증감	204	424	554	342	407	581	656	652	6,002
(증감률)	(5.0)	(7.1)	(7.3)	(4.4)	(5.0)	(6.8)	(7.2)	(6.6)	(5.7)
구성비	35.2	43.5	50.6	50.0	50.8	52.3	54.4	56.4	58.5

자료 : 통계청, 1992,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5. 광공업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분 류	'88	'89	'90	'91	'92
광 공 업 (증 가 율)	4,807 (4.5)	4,933 (2.6)	4,928 (0.1)	5,005 (1.6)	4,828 (3.5)
광 업 (증가율)	140 (24.7)	93 (33.6)	81 (12.9)	69 (14.8)	60 (13.0)
제 조 업 (증가율)	4,667 (5.7)	4,840 (3.7)	4,847 (0.1)	4,936 (1.8)	4,768 (23.4)

자료 : 통계청, 1992,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6. 제조업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년 도	1/4	2/4	3/4	4/4
'89	4,842	4,870	4,854	4,796
'90	4,719	4,811	4,908	4,951
'91	4,980	4,926	4,911	4,928
'92	4,874	4,820	4,700	4,676
('92전년동기증감)	△106	△106	△211	△252

자료 : 통계청, 1992,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7. SOC 및 기타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산업분류	'91	'92	'92. 1/4	2/4	3/4	4/4
SOC 및 기타 (증가율)	10,468 (6.6)	11,068 (5.7)	10,760 (6.7)	11,077 (6.4)	11,173 (5.3)	11,264 (7.3)
건 설 업 (증가율)	1,543 (15.2)	1,652 (7.1)	1,524 (12.1)	1,704 (9.0)	1,694 (5.3)	1,686 (3.6)
도 소 매 업 (증가율)	4,082 (4.1)	4,244 (4.0)	4,153 (3.1)	4,223 (4.5)	4,264 (4.2)	4,336 (4.0)
사 회 개 인 서 비 스 (증가율)	2,775 (5.5)	2,972 (7.1)	2,925 (8.7)	2,957 (7.2)	2,998 (6.9)	3,009 (5.8)
기 타 (증가율)	2,068 (77.3)	2,200 (6.4)	2,158 (7.6)	2,192 (6.9)	2,216 (5.7)	2,233 (5.3)

자료 : 통계청, 1992,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년도	총 수 (구성비)	비임금			임 금		
		근로자 (구성비)	자영업 (증감률)	무급가족 (증감률)	근로자 (구성비)	상용및임시 (증감률)	일 용 (증감률)
'75	11,692 (100.0)	6,940 (59.4)	4,008 (0.0)	2,932 (1.4)	4,751 (40.6)	3,628 (7.9)	1,123 (2.0)
'80	13,683 (100.0)	7,220 (52.8)	4,651 (1.7)	2,569 (0.6)	6,464 (47.2)	5,164 (2.1)	1,300 (9.3)
'85	14,970 (100.0)	6,866 (45.9)	4,679 (2.2)	2,287 (1.5)	8,104 (54.1)	6,714 (6.0)	1,390 (7.3)
'87	16,354 (100.0)	7,164 (43.8)	4,994 (2.6)	2,170 (1.5)	9,191 (56.2)	7,662 (9.8)	1,529 (5.2)
'88	16,870 (100.0)	7,260 (43.0)	5,093 (2.0)	2,167 (0.1)	9,610 (57.0)	8,114 (5.9)	1,496 (2.2)
'89	17,511 (100.0)	7,157 (40.9)	5,052 (0.8)	2,105 (2.9)	10,354 (59.1)	8,635 (6.4)	1,719 (14.9)
'90	18,036 (100.0)	7,171 (39.8)	5,100 (1.0)	2,071 (1.6)	10,865 (60.2)	9,034 (4.6)	1,831 (6.5)
'91	18,576 (100.0)	7,228 (39.2)	5,260 (3.1)	2,029 (2.0)	11,287 (60.8)	9,464 (4.8)	1,822 (0.5)
'92	18,921 (100.0)	7,416 (39.2)	5,442 (3.5)	1,974 (2.7)	11,505 (60.8)	9,738 (2.9)	1,767 (3.0)

자료 : 통계청, 1992,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9. 연령계층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년도	총수		15-19		20-29		30-59		60세 이상	
	전년 증감	전년 증감	전년 증감	전년 증감	전년 증감	전년 증감	전년 증감	전년 증감		
'85	14,970	541	634	20	4,068	66	9,389	438	879	57
'87	16,354	849	679	48	4,311	110	10,313	586	1,051	105
'88	16,870	516	598	81	4,313	2	10,868	555	1,091	40
'89	17,511	641	611	13	4,379	66	11,325	457	1,196	105
'90	18,036	525	576	35	4,405	26	11,766	441	1,289	93
'91	18,576	540	577	1	4,504	99	12,138	372	1,357	68
'92	18,921	345	529	48	4,459	45	12,442	304	1,492	135

자료 : 통계청, 1992,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10. 성별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성 별	'80(구성비)	'89(구성비)	'90(구성비)	'91(구성비)	'92(구성비)
남 자	8,462(61.8)	10,390(59.3)	10,695(59.3)	44,068(59.6)	11,312(59.8)
여 자	5,222(38.2)	7,121(40.7)	7,341(40.7)	7,507(40.4)	7,609(40.2)

자료 : 통계청, 1992,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11. 주요국의 실업률

(단위 : 천명, %)

국 가	'75	'80	'85	'87	'88	'89	'90	'91	'92
한 국	4.1	5.2	4.0	3.1	2.5	2.6	2.4	2.3	2.4
미 국	8.5	7.0	7.1	6.1	5.4	5.2	5.4	6.8	7.4
캐 나 다	6.9	7.5	10.5	8.9	7.8	7.5	8.1	10.3	11.3
영 국	4.0	6.8	11.9	10.6	8.4	6.3	5.9	8.0	9.8
서 독	4.7	3.8	9.3	8.9	8.7	7.9	7.2	6.3	7.7
프 랑 스	4.1	6.3	10.2	10.5	10.0	9.4	9.0	9.4	10.2
일 본	1.9	2.0	2.6	2.8	2.5	2.3	2.1	2.1	2.2
대 만	2.4	1.2	2.9	2.0	1.7	1.6	1.7	1.5	1.5

자료 : 통계청, 1992,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12. 실업자(율) 추이

(단위 : 천명, %)

년도	실업자				실업률					
	남자	여자	농가	비농가	남자	여자	농가	비농가		
'85	622	480	141	42	580	4.0	5.0	2.4	1.1	4.9
'87	519	397	122	26	493	3.1	3.9	1.8	0.7	3.8
'88	435	315	120	20	415	2.5	3.0	1.7	0.5	3.0
'89	459	325	134	23	436	2.6	3.0	1.9	0.6	3.0
'90	451	318	133	21	430	2.4	2.9	1.8	0.6	2.9
'91	436	287	149	27	409	2.3	2.5	2.0	0.8	2.6
'92	464	303	161	26	437	2.4	2.6	2.1	0.8	2.7

자료 : 통계청, 1992,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13. 교육정도별 실업자(율)

(단위 : 천명, %)

년도	총수		중졸 이하			고졸						
	실업률	구성비	실업률	구성비	실업률	구성비	실업률	구성비	실업률	구성비		
'85	622	4.0	100.0	222	2.5	35.7	291	5.9	46.8	109	6.6	17.5
'87	519	3.1	100.0	157	1.7	30.2	251	4.3	48.4	111	5.7	21.4
'88	435	2.5	100.0	114	1.3	26.2	220	3.6	50.6	101	4.7	23.2
'89	459	2.6	100.0	114	1.3	24.8	229	3.5	50.0	116	4.8	25.2
'90	451	2.4	100.0	98	1.1	21.7	238	3.4	52.8	115	4.5	25.5
'91	436	2.3	100.0	93	1.1	21.4	241	3.2	55.4	101	3.6	23.2
'92	463	2.4	100.0	95	1.1	20.4	260	3.3	56.1	109	3.5	23.5

자료 : 통계청, 1992,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14.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 천명, %)

연령	실업자			실업률		
	'90	'91	'92	'90	'91	'92
총수	451	436	464	2.4	2.3	2.4
15-19	58	59	60	9.1	9.3	10.2
20-24	125	144	150	6.3	6.9	7.0
25-29	104	92	102	3.9	3.5	4.0
30-59	157	138	145	1.3	1.1	1.2
60세이상	5	4	5	0.4	0.3	0.3

자료 : 통계청, 1992, 경제활동인구연보